

# 2

February 2023  
Vol.374

#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 COVER STORY

창단 50주년 맞은 부산시립무용단

## COLUMN

아버지를 보면서 모비 디를 읽다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문화매개공간 밤



Time to Dance  
1973 - 2023  
**50**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월드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World Competition Winner Series

W  
C  
W  
S



제18회 쇼팽 콩쿠르 우승자

# 브루스 리우 피아노 리사이틀

2023.03.10.(금),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석 6만원, S석 4만원



월드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World Competition Winner Series

제12회 시벨리우스 국제 콩쿠르 우승자와  
2005년 나고야 국제 콩쿠르 우승자

# 양인모 & 김다솔 듀오 리사이틀

2023.03.29.(수),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주최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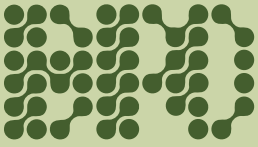
부산일보사



597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Soo-Yeou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Wagner and Bruckner

# 사랑의 죽음

지휘 홍석원

바그너 / "트리스탄과 이졸데" 中 전주곡과 사랑의 죽음  
브루크너 / 교향곡 제6번 (노바크 판본)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티켓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문의 051-607-6000(ARS 1번)

[www.bscc.or.kr](http://www.bscc.or.kr)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 부산시향의 **쫄인 I**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2023. 3. 3 FRI 19:30 PM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Busan Cultural Center

C.P.E. 바흐 • 오보에 소나타 G단조  
C.P.E. Bach • Oboe sonata in G minor, Wq.135

브리튼 • 템포랄 변주곡  
B. Britten • Temporal Variation

실베스트리니 • 오보에를 위한 6개의 연습곡  
G. Silvestrini • Six Etudes for Oboe

슈렉 •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F장조  
G. Schreck • Sonata for Oboe and Piano in F major, Op.13(1889)

모리스 • 네 개의 성격  
A. Morris • Four Personalities Based on the Hartmann Personality Test

오보에 고관수 KwanSoo Ko, Oboe

피아노 김재원 Jaewon Kim, Piano



연출/안무  
이정운 예술감독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23.2.25.

(토) 1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財)  
문화재단

주관  
부산시립무용단

제작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무용단 창단 50주년

# The 50 Time to Dance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티켓  
전석 20,000원

문의  
051-607-6000

예매  
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http://www.bscc.or.kr)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 CONTENTS

## 2

월간문화예술정보지



08 **Column**  
아바타를 보면서 모비 딕을 읽다

10 **Cover Story**  
춤으로 반세기를 이어오다  
창단 50주년 맞은 부산시립무용단

18 **거꾸로 보는 미술사 ⑱**  
우리의 신화를 담은 그림 1

22 **세계오페라축제 ⑫**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과  
뮌헨 오페라축제

26 **골목에서 만나다\_생활 속 문화공간**  
문화매개공간 씬

29 **Preview**

32 **Review**

36 **Program Guide**

45 **New Book**

46 **BSCC News**

*예술의 조대* February 2023 Vol.374

2023년 2월호 통권 374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정필    **편집인** 김명숙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3년 1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SUN	MON	TUE	W
<p><b>예매</b></p>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2월 6일부터 20일까지는 무대점검기간입니다.</p>	<p><b>전시실</b></p> <p>BIKAF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 2월 23일(목)-2월 26일(일) • 관람시간 : 오전 10:00~오후 6:00 (입장마감 오후 5:00) ※ 2월 23일은 오후 3:00부터 관람가능 • 입 장 료 : 균일 5천원 • 문 의 : BIKAF운영위원회 1899-0203, bikaf.co.kr</p>		
<p><b>5</b></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14:00 대 14만원·13만원·10만원·7만원 (쉬월드쇼마켓(1566-5490)) 제16회 광남유나이티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7:00 중 광남유나이티드오케스트라(010-4555-1470)</p>	<p><b>6</b></p>	<p><b>7</b></p>	
<p><b>12</b></p>	<p><b>13</b></p>	<p><b>14</b></p>	
<p><b>19</b></p>	<p><b>20</b></p>	<p>◆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7회 정기연주회 '사랑과 죽음'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희망을 노래하다' 19:30 첼 초대/(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코리아바순솔리스트 19:30 첼 스튜디오 더존(02-5</p>
<p><b>26</b></p> <p>◆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_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피터팬' 13:00, 16:00 중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27</b></p>	<p><b>28</b></p> <p>클래식과 뮤지컬 그리고 팝페라의 밤 19:30 대 7만원·5만원·4만원·3만원/부산문화(1600-1803)</p>	



ED	THU	FRI	SAT
1	2	3	4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2023 신년음악회' 19:30                      챔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19:30                      대 14만원·13만원·10만원·7만원                      (썬월드쇼마켓(1566-5490))</p> <p>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 I' 19:30                      챔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14:00, 19:00                      대 14만원·13만원·10만원·7만원                      (썬월드쇼마켓(1566-5490))</p> <p>남구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14:00, 17:00                      중 부산남구청(607-4065)</p>
8	9	10	11
5	16	17	18
2	23	24	25
<p>양옥진 첼로독주회 '슈베르트:겨울나그네' 19:30                      챔 전석 2만원/IPB(070-8018-8303)</p>	<p>박한나 귀국 플루트독주회 19:30                      챔 박한나(010-9878-7939)</p>	<p>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_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피터팬' 16:00, 19:00                      중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http://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
<p><b>예매</b></p>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a href="http://www.bscc.or.kr">www.bscc.or.kr</a>)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b>전시실</b></p> <p>주님의 기도전 1월 31일(화)-2월 5일(일) 전시실1 부인자 010-6555-5438</p> <p>박수진 개인전 2월 8일(수)-2월 12일(일) 전시실1 박수진 010-8916-8466</p>		
<p><b>5</b></p> <p>뮤지컬 '브레드야발소_대결! 최고의 이발사' 11:00, 14:00, 16:30 <b>대</b> 6만원·5만원/쥬티엔에스컴퍼니(1544-1555)</p>	<p><b>6</b></p>	<p><b>7</b></p>	
<p><b>12</b></p>	<p><b>13</b></p>	<p><b>14</b></p>	
<p><b>19</b></p> <p>코리아 전국 음악 예술제 09:00 <b>소</b> (쥬한아방송(010-2548-8038))</p>	<p><b>20</b></p>	<p><b>21</b></p>	
<p><b>26</b></p>	<p><b>27</b></p>	<p><b>28</b></p> <p>경향콩쿠르 09:00 <b>소</b> 경향아트(462-7071)</p>	

ED	THU	FRI	SAT
1	2	3	4 뮤지컬 '브레드이발소_대결! 최고의 이발사' 11:00, 14:00, 16:30 대 6만원-5만원 / (주)티엔에스컴퍼니(1544-1555) Body&Groove vol.2 17:00 소 그루비댄스학원(010-5851-1259)
8	9	1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쓰리보이즈 리턴즈' 19:30 소 전석 2만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1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쓰리보이즈 리턴즈' 15:00 소 전석 2만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5	16	17	18 코리아 전국 음악 예술제 09:00 소 (주)한아방송(010-2548-8038)
2	23	24 대신더발레 4회 무용발표회 19:00 소 대신더발레학원(010-9326-2967)	25 부산시립무용단 창단50주년 기념 특별공연 'The 50_Time to Dance' 15:00 대 전석 2만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남구유스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17:00 소 부산남구유스오케스트라(633-1949)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http://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 아바타를 보면서 모비 딕을 읽다

채영희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지난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여러 면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드라마였다. 다양한 유형의 인간뿐만 아니라, 마을 팽나무와 고래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했다. 흑등고래 사진을 찍는 장남원 작가의 고래 사진도 흥미로웠다. 그러나 정작 그 드라마에 우영우가 아끼던 고래 소품들의 원산지가 부산인 것은 알려지지 않아서 안타깝다. 부산 문현동의 북카페 백경 대표는 오랫동안 수집해온 고래 관련 소품을 그 드라마를 위해 선뜻 빌려준 분이였다.

드라마 때문에 샌디에이고에서 범고래의 쇼를 처음 본 날이 기억났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등장하는 범고래의 위풍당당함과 물속에서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날렵함에 넋을 놓고 보았던 기억이 난다. 범고래에 비하면 나는 그저 작고 소심한 인간이었고 이 거대한 생명체의 신비로움에 매료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에 먹먹했던 적이 새삼스러웠다. 그래서 예전에 급하게 읽었던 '모비 딕'을 다시 읽어 보기로 했다. 마침 출판사 '작가정신'에서 무삭제 완역 일러스트판을 2010년 내놓았던 터라 드라마 끝날 즈음에 새로 구입해서 짹짹 읽기 시작했다. 모두 817쪽이나 되는 책을 단숨에 읽기에는 버겁기도 했지만 읽을수록 음미해야 할 문장이 많았기 때문이다.

13년 전 '아바타 1'를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겼다. 하나는 '내

가 제이크라면 판도라에 남았을까?' 제이크처럼 판도라에서 신체적 결핍이 없이 자유롭게 살았을까? 아니면 하반신 마비라는 결핍을 안고 지구로 돌아왔을 것인가?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수많은 한계들은 새로운 신기술의 개발과 함께 극복되는 중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분명한데도 그는 판도라에 남았다. 그 낯선 행성에서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은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은 하나 같이 흠결 없는 멋지고 단단한 신체와 아름다움을 한껏 장착하고 있는 젊음, 그 자체의 신들인데 헤파이트스만 신체적 결핍을 지닌 신으로 설정한 이유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까지 이어졌다. 그의 결핍이 불과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가 되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창조의 기쁨으로 이어졌다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앞으로 주인공에게 어떤 결핍을 부여하고 해결하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예술에서 완전무결한 창작이란 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었다. 카메론 감독이 만든 행성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천공의 섬 라퓨타' 속 장면을 그대로 가져 왔고, 일본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의 공중섬 라퓨타'에서 부유도에 대한 이미지를 얻었으니, 완전무결한 창작은 어느 선에서 합의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도 있었지만 2편이

나오는 데 13년이 걸려서 그때의 감응이 거의 가물가물해지고 말았다.

‘아바타 2’가 개봉되었다는 말을 듣고 영화관으로 가서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본 소감은 제임스 감독이 19세기 소설가 허먼 멜빌에게 헌정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장면에서 그동안 자신이 만든 ‘아비스’와 ‘타이타닉’의 해양 영화의 요소들을 변주하여 응용한 것도 그렇지만 문학 작품 속의 장면들을 참조하고, 인용하고, 모방한 것을 보면서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경계는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다시 들었다. 영화 보는 내내 1851년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 딕’에 나온 여러 대사들과 장면이 겹쳐 보였다. ‘모비 딕’의 장면 장면을, 그 섬세한 묘사를 음미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바타’의 많은 장면이 그에 대한 오마주임을 알 것이다. 소설 ‘모비 딕’ 속 군상들이 만들어 내는 강렬한 창조와 파괴의 두 욕망들의 충돌이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긴장감을 느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알아챘을 것이다. ‘모비 딕’의 향유고래의 머릿속 기름을 얻기 위한 인간의 탐욕스러운 포경 과정과 아바타의 툰의 머리에서 빼내는 인간의 노화를 막아 준다는 옴리타를 추출하는 장면이 겹쳐 보이고, 선장 에이하브의 집착과 광기가 빛은 비극적 결말이 고래를 잡기 위한 작살의 밧줄에 자신이 묶여 고래와 함께 수중으로 들어가는 묘사가 영화 속 툰 사냥꾼의 죽음과 겹쳐 보인 것은 아마도 나의 영화에 대한 지나친 몰입 때문일 지도 모른다. 소설 ‘모비 딕’에서 허먼 멜빌의 삶에 대한 통찰력과 행복에 대한 정의는 또 얼마나 경쾌하던가.

영원히 경뇌유를 쥐어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되풀이된 경험을 통해 인간이란 어떤 경우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행복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결국에는 낮추거나 어떤 식으로든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행복은 결코 지성이나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나 연인, 침대, 식탁, 안장, 난롯가, 그리고 전원 등에 있다. 나는 이제 이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름통을 영원히 쥐어짤 준비가 되어 있다. 어느 날 밤 나는 환상의 상념 속에서 낙원의 천사들이 제각기 손에 경뇌유 통 속에 넣은 채 길게 줄을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모비 딕 577~578쪽)

소설을 읽으면서 여러 번 되새김질하게 한 문장이 많았다. 특히 나를 묶고 있는 밧줄의 굵기를 가늠하기 어려워 때로 절망하거나, 때

로 위로가 필요할 때 소리 내어 읽은 구절도 있다. ‘늘 존재하는 삶의 위험들을 깨닫는 것은 갑자기 죽음으로 급선회할 때뿐이다.’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급선회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공감할 구절이다.

인간은 누구나 포경 밧줄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모든 인간은 목에 밧줄을 두른 채 태어났다. 하지만 인간들이 조용하고 포착하기 힘들지만 늘 존재하는 삶의 위험들을 깨닫는 것은 삶이 갑자기 죽음으로 급선회할 때뿐이다. 여러분이 철학자라면, 포경 보트에 앉아 있어도 작살이 아니라 부지깽이를 옆에 놓고 난롯가에 앉아 있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공포를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모비 딕 407쪽)

어디선가 본 듯한 이미지와 어디선가 들은 듯한 멜로디와 어디선가 읽은 듯한 구절들이 혼재해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모든 창작이 오롯이 자신의 것이라는 주장은 얼마나 무의미한가? 영화 ‘헤어질 결심’을 보면서, 정훈희의 ‘안개’를 들으면서 김승옥의 ‘무진기행’이 겹쳐 읽어진다. 창작과 표절의 경계를 짓는 것은 결국 알아채는 사람의 몫인가? 우리가 다른 시대와 다른 장소에 살면서도 인종도 다른 사람들 삶 속에 스스로를 투사해 보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서사적 인간이기 때문이라 생각하자. 인간이 가진 보편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모비 딕’의 ‘잡은 고래’와 ‘놓친 고래’ 대한 이야기를 곱씹어 본다.

인간의 권리와 세계의 자유 역시 ‘놓친 고래’ 아닌가? 모든 인간의 마음과 의견은 ‘놓친 고래’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들이 가진 종교적 믿음의 원칙은 ‘놓친 고래’가 아니고 무엇인가. 표절을 일삼는 사이비 미문가에게 철인의 사상은 ‘놓친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이 커다란 지구 자체는 ‘놓친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독자들이여, 그대도 역시 ‘놓친 고래’이자 ‘잡힌 고래’가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모비 딕 552~554쪽)

소설 속 포경선 피쿼드 호는 백인에게 학살당한 미국 북동부 원주민 부족 명이라고 한다. 피쿼드 호의 1등 항해사 스타 벅의 이름을 딴 커피점 ‘스타 벅스’는 그리스 작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속 사이렌 인어 로고를 하고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 춤으로 반세기를 이어오다 창단 50주년 맞은 부산시립무용단

1973년 2월 25일, 전국 최초의  
시립무용단으로 창단된 부산시립무용단이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았다.

## 부산시립무용단 2023년 공연일정

**부산시립무용단 창단 50주년 기념 특별공연**  
The 50\_Time to Dance  
2월 25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부산시립무용단 제87회 정기공연**  
아라비안나이트\_No. 1001야화  
5월 12일(금)-13일(토)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이정윤의 댄스살롱\_The50/그 동안  
7월 21일(금)-22일(토)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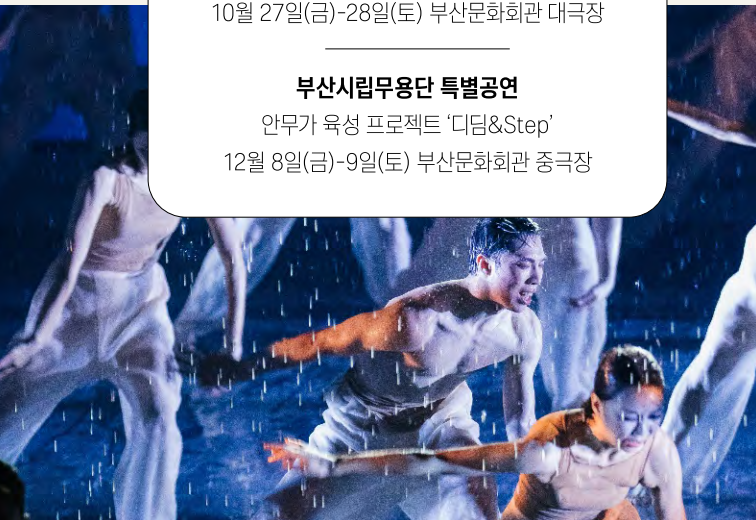
**부산시립무용단 제88회 정기공연**  
The Legacy  
10월 27일(금)-28일(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 '디딤&Step'  
12월 8일(금)-9일(토)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전국 최초의 시립무용단

창단 후 우리 전통춤을 계승, 발전시키고 끊임없는 창의력으로 부산은 물론 한국 무용계를 주도해온 부산시립무용단은 그동안 우리의 전통춤을 역동적이면서도 신명나는 춤사위로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한 작품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또한 시립예술단으로 시민들 곁에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이 외에도 '우리춤 산책', '여름마당춤판', '한 여름밤의 춤 작품전', '장애인을 위한 특별공연' 등 주제가 있는 특별공연으로 다양한 관객층과 만나왔다. 특히 수준 높은 문화도시 부산을 알리기 위한 문화사절단으로 그동안 러시아, 베트남,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태국, 싱가포르, 인도, 중국, 이태리, 스위스, 케냐, 이디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수많은 해외 공연을 가진 바 있다.

부산시립무용단 창단 당시 초대 안무자로는 신무용 2세대이자 부산에 창작 한국무용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 황무봉이 맡았으며, 연구단원 11명을 포함하여 총 34명의 무용수가 단원으로 입단했다. 창단공연으로는 그해 10월 12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부산시민회관 개관기념공연을 겸한 무용극 <아아 동래성>(강이문 구성·연출, 황무봉 안무)을 선보였다. 이날 무대에서는 '강강수월래', '아아 동래성', '출어제' 등이 공연되었는데, 특히 '아아 동래성'은 지방의 향토성이 강조된 작품으로 시립무용단 창단의 의미를 더했다. 이후 2대 김현자(1979년 4월~1982년 12월), 3대 최은희(1983년 4월~1984년 9월), 4대 손세란(1984년 9월~1988년 3월), 5대 홍민애(1988년 4월~1992년 12월), 6대 김진홍(1993년 2월~1995년 2





월), 7대 이노연(1995년 3월~2003년 3월), 8대 홍기태(2004년 1월~2012년 12월), 9대 홍경희(2013년 1월~2015년 12월), 10대 김용철(2016년 4월~2018년 12월)을 거쳐 2019년부터 이정윤 예술감독이 시립무용단을 이끌고 있다.

### 한국춤의 정통성으로 동시대를 아우른다

한국무용계 간판스타로, 시대와 장르를 불문하며 선·후대를 아우르는 위치에서 탁월한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정윤 예술감독은 우수한 기량을 보유하고 있는 45명의 무용수들과 함께 한국춤의 정통성과 국제적인 감각으로 동시대를 아우르는 부산시립무용단의 춤 콘텐츠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독창적인 기획과 방향을 제시, 한국의 무용 예술을 주도하는 한편, 문화시민으로서 부산 관객들의 자긍심을 높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최고의 무용단으로 그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 창단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

부산시립무용단 창단일인 2월 25일에는 무용단 50년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념하고 자축하는 특별한 무대 ‘The 50\_Time to Dance’가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전·현직 예술감독과 안무자, 출신 단원들을 비롯하여 오랜 세월 시립무용단과 함께 해온 시민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창단 5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행사와 축하공연을 통해 춤으로 반세기를 이어 온 시립무용단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50년을 전망해본다. 축하공연으로는 시립무용단 50주년을 자축하는 ‘태평무’를

시작으로 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작품인 ‘본색’ 중 ‘고혹’, ‘학이여 그리움이어’, 그리고 역동적인 ‘오고무’를 선보인다. 특히 ‘고혹’은 ‘한국춤 본연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하고 춤과 삶의 가치를 보여준 시립무용단의 2021년 신작 레퍼토리 공연 ‘본색’ 중 대표작으로, 거문고 독주곡 ‘버닝(Burning)’을 해석한, 강렬한 움직임과 에너지가 느껴지는 열정과 열망의 춤이다. 2021년 첫 무대에서는 독무로 발표되었으며, 2022년 재공연까지 많은 무대를 통해 독무에서 3인무, 5인무, 8인무 등 다양하게 변주되어 선보인 바 있다. 2022년 ‘본색’에 등장하는 ‘학이여 그리움이어’는 동래지역을 대표하는 학춤과 한량무를 재구성한 남성 군무로, 선비의 기개, 학의 고고함과 더불어 그리움의 정서가 담겨져 있다.

### The 50\_Time to Dance

부산시립무용단은 창단 50주년 기념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올 한 해 창단 50주년의 의미와 철학을 담은 다양한 무대를 선사한다. 우선 두 차례 정기공연으로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업으로 제작되는 특별한 무대 ‘아라비안나이트\_No. 1001야화’(제87회 정기, 5월 12일~13일)와 부산시립무용단 대표작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첫 번째 무대 ‘The Legacy’(제88회 정기, 10월 27일~28일)가 펼쳐진다. 이밖에 부산무용과 부산시립무용단의 교류, ‘이정윤의 댄스살롱\_The50/그 동안’, 그 때 그 춤 ‘홀로홀춤1973’,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 ‘디딤&Step’ 등 다양한 기획공연들이 ‘The 50\_Time to Dance’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 부산시립무용단 50년,

# 그 시작과 동시대적 가치

이상현 춤 비평가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무용단 창단식



제7회 정기공연 '여자 새되어 울다'(1980년 7월 1일~2일)

2023년 2월 25일은 부산시립무용단(이후 '시립무용단') 창단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립무용단이었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대한민국에서 전국 최초의 시립무용단이 부산에서 창단한 배경과 의미를 현재 상황과 비교해 보는 것은 시립무용단 가치의 연대기를 짚어봄으로써 미래 가치까지 예측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 1970년대까지 부산 무용계 상황

19세기 말 외세에 의해 강제로 개항한 조선은 20세기에 이르러 봉건 질서가 무너지고 일본의 강점이 본격화한다. 조선의 예술도 이러한 정치 사회적 흐름에서 비껴갈 수 없었다. 부산 무용은 1910년 교방에서 벗어난 기생들이 조직한 동래예기조합(동래기생조합에서 1912년 개칭)이 한동안 중심에 있었다. 서울의 경우 1920년대를 지나면서 신무용이 태동하였고, 예기들의 활동이 점차 약화하였지만, 부산은 더 오랜 기간 예기가 예술을 주도하였다.<sup>1)</sup> 1940년대가 되면 예술은 일제 식민체제 강화의 도구가 되어 전쟁 합리화와 참전을 독려하고, 일제에 충성하도록 선전하는 프로파간다 역할을 강요당한다. 일본으로 유학

하러 갔던 무용가들도 전시체제의 일본에서 벗어나 귀국 길에 오르는데, 이들 중 일부가 부산에 정착하였다. 1945년 해방 후 일본 유학파인 김동민<sup>2)</sup>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사설 민속무용연

1) 1920년을 전후하여 일본 교방(敎坊)의 이름을 모방하여 권번(券番)으로 개칭한 기생 조합이 형성되었는데 부산에도 동래권번, 봉래권번, 부산권번이 생겨났으며 이것은 일제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 속에서도 우리의 전통적 가무악의 명맥을 이어 온 곳으로, 전통 연희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당시 권번 계열에서는 동래 출신의 박난정, 최계량, 김해월 등이 가무에 능통하여 부산을 대표하였다.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  
2) 김동민(1910~1999), 경남 양산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메이지대학 법학과 졸업, 1940년대 부산에서 민속무용가로 활동. 1945년 토성동 자택에 부산 최초 민간 무용 연구소 '경남국악원'(이후 '민속무용연구소'로 개칭)을 열어 일반인 대상으로 춤 교육을 시작했다.(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

구소를 열어 춤이 일반인에게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집중하는 현상이 점차 강화하여 지금에 이른다.

현대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수도권 집중에 변화가 있었던 시기는 한국전쟁 시기였다. 전쟁으로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면서 예술인들이 피난 온 덕분에 부산은 잠시나마 한국 무용의 중심지 역할을 맡게 되었다. 1953년 휴전이 되면서 대부분의 예술인이 서울로 돌아갔지만, 몇몇은 부산에 남았다. 당시 부산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무용가로는 강이문, 김미화, 박성옥, 임수영, 장홍심, 한순옥 등이 있다. 이들은 부산무용가협회, 부산무용예술인협회 등을 조직해 부산 무용계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다.<sup>3)</sup>

1970년대에 들어서자 한국 무용 분야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난다. 춤을 한국, 현대, 발레로 갈라짓는 관행이 굳어졌고, 이는 창작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장 급격한 변화는 한국 무용 분야에서 나타났다. 그동안 한국 무용은 기존형식과 기법에 얽매인 재현과 모방이거나 신무용 유형의 창작을 이어오고 있었다. 또한 한국 사회가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변화의 길로 접어들면서 전원풍의 춤에 치중하던 신무용의 호소력이 떨어졌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전통춤 유산의 발굴 작업과 정부 주도의 민족 문화 진흥 사업에 고무되어 한국 전통춤 언어를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sup>4)</sup>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부산 무용계에도 영향을 미쳐 1960년대와 다른 현대적 무용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1970년 문공부 예술창작 지원작품 공모 현대무용 부문에 <산하역만년(山河億萬年)>(강이문 작)이 당선되고, 서울과 대구에서 발표공연을 가진 것이 도화선이 되어 부산에도 무용 예술의



제39회 정기공연 '학'(1998년 5월 14일)

현대성이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어 4백여 명이 출연한 뮤지컬 플레이 <조국찬가>(강이문 구성·연출) 공연에서 재부 무용인들이 음악, 연극, 연예, 문학인들과 더불어 참여하였다. 이 시기에 산업대학(경성대학교 전신)에 전국 최초로 무용 미학 강좌가 개설되었다. 1972년 한국무용협회 주최 전국 창작 합동 공연(서울)에 부산 무용인이 처음 참가해 시선을 끌었다.<sup>5)</sup>

### 시립무용단 창단

1970년대 들어서 정부에서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고 한국 문화예술진흥원을 개원하면서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마침 1973년 부산에서 제54회 전국체전이 열리는 것을 계기로 부산시가 문화 행정에 더욱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마침내 1973년 시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창달의 목적과 국내외에 '문화가 있는 아름다운 해양도시 부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서 부산을 대표하는 시립무용단을 전국 최초로 창단했다. 부단장에 강이문(무용비평), 초대 안무자로 황무봉, 단무장은 손세란이 맡았다. 단원 23명<sup>6)</sup>과 연구단원 11명<sup>7)</sup> 등 모두 34명으로 구성했다. 단원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무용 수학 경력 3년 이상, 대학 학장, 고등학교장, 관인 무용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선발했다.

5) 강이문 '부산춤(3)) 모방 벗어나 창작의식 싹트다' <공연과 리뷰> 2015, pp.101-104.

6) 김양옥, 문명수, 김명숙, 심수희, 이광순, 김지영, 문임선, 권춘화, 김경자, 최규남, 김정순, 김영주, 유경호, 김로서, 박무숙, 최화선, 진경애, 박소림, 정신복, 박은숙, 손정임, 권향, 조영선

7) 신봉희, 김선애, 손정숙, 유정옥, 박임화, 김희순, 김복희, 박순희, 양은자, 최미선, 김인용

3) 강이문 <부산문화의 어제와 오늘> 1990

4) 김경애, 김재현, 이종호 <우리 무용 100년>, 방영일 문화재단, 2001. pp.184-186.

창단공연은 무용극 <청구세시무(靑丘歲時舞)>, <아아 동래성><sup>8)</sup>(강이문 구성·연출, 황무봉 안무)이었으며, 같은 해 10월 11일~12일 전국 최초로 개관한 부산시민회관의 첫 무대를 밟았다. 창단 당시 무용단은 '시립'이라는 명칭을 달았지만, 보수는 없었고, 연습복이나 슈즈 등 소모품만 제공받았다.

시립무용단은 초대 안무자 황무봉을 시작으로 2대 김현자, 3대 최은희, 4대 손세란, 5대 홍민애, 6대 김진홍, 7대 이노연, 8대 홍기태, 9대 홍경희를 거쳐 10대 김용철, 11대 이정윤까지 이어오고 있다. 초대 안무자 황무봉은 신무용 2세대이자 무용 교육자로 수천 명의 제자를 길러낸 인물로 부산에 창작 한국 무용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대 김현자는 황무봉의 제자로 부산대학교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최은희는 김천홍, 한영숙, 이매방에게 사사하였고, 경성대학교 무용학교 교수로 퇴임하였다. 손세란은 이매방, 한영숙, 황무봉에게 사사하였고, 강이문, 황무봉과 함께 시립무용단 창단을 주도하였다. 5대 홍민애는 이매방, 김혜성(발레) 등에게 사사하였고, 재직 시절 무용단이 시민회관에서 지금의 문화회관으로 옮겼다. 김진홍은 이매방, 이춘우, 문장원, 김계향에게 사사하였고, 현재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4호 동래한량

춤 예능보유자이다. 7대 이노연은 어린 시절 리틀엔젤스 제1기 단원으로 활동하였고, 이화여대를 나와 1995년~2003년 3월까지 부산시립무용단 안무자로 활동하였다. 8대 홍기태는 1985년부터 2012년까지 시립무용단 단원으로 활동하였고, 단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안무자가 되었다. 9대 홍경희는 서울 시립무용단 수석 및 지도위원,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장, 인천 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을 거쳐 시립무용단 창단 40주년을 맞는 해부터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가 되었다. 10대 김용철은 서울 시립무용단 단원,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를 거쳐 2016년부터 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을 맡았다. 현재 이정윤 예술감독은 11대로 국립무용단에서 한국무용계 간판스타로 활동하였고, 2018년부터 대만 타이베이 국립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로 특채 임용되어 재직하다가 시립무용단을 맡게 되었다.

역대 안무자, 예술감독은 시립무용단의 예술적 지향을 결정하고, 그들이 습득한 우리 춤의 정신과 기법이 단원들에게 전해지면서 세대를 잇는다. 이에 따라 시립무용단 단원 한 사람은 우리 춤의 다양한 전통을 체화한 살아있는 아카이브가 된다. 또한 역대 안무자의 면면을 통해 시립무용단이 부산무용계는 물론 대한민국 무용계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 시립무용단의 동시대적 가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산 무용계는 격변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무용 예술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시립무용단도 흐름과

8) 강이문 <공연과 리뷰>에는 '아아 동래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기록에서는 '아아 동래성'으로 표기되어 있다.







창단 40주년 기념 공연 및 제69회 정기공연 '춤추는 영혼'(2013년 11월 22일~23일)

변화 속에서 자기 위치를 언제나 지키고 있었다. 예산, 사람, 시스템이 집중해 있는 시립무용단은 민간 단체나 개인이 시도하기 어려운 작품을 창작해 부산 무용인의 예술적 갈증을 간접적으로나마 해소해주었고, 창작의 최전선을 보여주면서도 전통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일에도 큰 몫을 담당하였다. 무엇보다 부산의 우리 춤이 짙은 향기를 잃지 않도록 간직하고 되새기는 일에 힘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집중된 탓에 '잘해야 본전'이라는 비판적인 시선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의무를 다해도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위치는 대규모 공공 무용단의 운명 같은 것이어서 마땅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 시립무용단이 끊임없이 진보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잠시 1970년대로 돌아가 보자. 당시 부산은 춤의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무용 생태계가 조성되는 시기였다. 시립무용단 창단으로 변화의 동력을 얻었고, 민속춤의 재발견과 대학 무용의 성장으로 부산 무용계가 번성하면서 2000년대 초까지 전성기를



제5회 정기공연 '하늘에 피는 꽃'(1978년 3월 31일~4월 1일)





부산시립무용단

창단 50주년

제80회 정기공연-남풍South Breeze(2019년 11월 28일-29일)

누렸다. 부산 무용 생태계가 건강할 때 시립무용단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했다. 하지만, 민간 단체와 개인 활동이 위축되고, 청년 예술가의 역할 유출이 심화하여 무용 생태계 악순환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시립무용단은 스스로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시립무용단의 역할과 가치가 재조명된 것은 역설적으로 부산 무용계의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이다.

지금 부산 무용 생태계는 건강성이 점차 악화하는 상황이다. 자연 생태계의 건강은 개체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기보다 종(種)이 얼마나 다양한가에 있다. 무용 생태계가 건강해 지려면 세대(종)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젊은 세대의 수는 갈수록 적어지고, 전통·전승 춤 공연은 끊어질 않지만, 창작 공연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생태계의 불균형이 고착화하고 순환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향간에 떠도는 '부산은 얼마 가지 않아 노인과 바다만 남는다

는 표현이 부산 무용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한다면, '부산 무용계는 시립무용단과 문화재 종목만 남을 수 있다. 민간 부문이 위축되었을 때, 공공 무용단은 최후의 보루이자, 재생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청년 무용가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게 손을 내밀고, 부산춤, 부산의 춤, 부산에서의 춤이 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절대 가볍지 않은, 그렇다고 피할 수 없는 시립무용단의 몫이다.

시립무용단은 부산 무용이 본격적으로 현대적 무용 예술로 전환한 시발점이었고, 50년 동안 부산 춤의 정체성을 다지고 간직한 부산의 상징적 무용단이며, 이제 부산 무용의 재생을 주도해야 할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무용단의 지향점은 곧바로 무용단의 동시대적 존재 가치이기도 하다. 부산 무용계를 깨울 울림이 있는 진중한 발걸음을 기대한다.

## 시간의 나이에 걸맞은 넓고 깊은 아우름으로 다음 50년을 바라보다

이정윤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부산시립무용단 창단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국 최초의 시립무용단으로 1973년 부산시립무용단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2023년 계묘년, 반세기에 이르렀습니다. 50년간 부산무용예술의 중추로 존재하며 공공 공연예술단체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신 역대 단장, 예술감독, 안무자, 그리고 단원들의 노고와 창의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과를 이뤄왔으며, 우리 시대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며 유산입니다.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러한 부산시립무용단의 11대 예술감독으로서 찬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념하고 자축하는 2023년의 시간을 영광으로 여기며 막중한 책임과 함께 정성을 다해 채워 가려고 합니다.

### ‘아우름’ 그리고 ‘다음50’

시간의 나이에 걸맞은 넓고 깊은 아우름은 현재를 보게 하고 다음을 보게 합니다. 우리 시대의 정체성과 존재적 가치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기념식 및 공연은 <The 50\_Time to Dance>입니다. 전·현직 예술감독님과 출신 단원들을 비롯하여 부산시립무용단에 공헌한 많은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에너지를 아우르는 자축공연입니다. 1973년 같은 해에 개관한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창립일 2월 25일에 올려 집니다. 부산시립무용단의 50년사를 관객들이 한 숨에 느끼고 체험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다음50년’을 위한 미래적 가치와 방향을 제안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 50주년 시즌 공연

반세기를 넘어서는 시간을 몇 차례의 공연으로 대변할 수

없지만, 2023년 부산시립무용단의 시즌 공연은 창단 50주년의 의미와 철학을 담은 공연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업으로 제작되는 클래식x클래식, 창단 50주년 정기공연 아라비안나이트 <No. 1001야화>, 부산무용과 부산시립무용단의 교류, 기획공연 <이정윤의 댄스살롱\_The50/그 동안>, 부산시립무용단 대표작 만들기 프로젝트1, 정기공연 <The Legacy>, 그 때 그 춤 <홀로홀춤1973>,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 <디딤&Step> 등 2023년 부산시립무용단은 <The 50\_Time to Dance>라는 주제로 창단 50주년을 기념합니다.

앞으로 훨씬 충실하고 빼어나며 진전된 60주년, 70주년, 그 이상을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부산시립무용단은 앞으로의 50주년에도 부산 관객의 격조 높은 예술 취향을 아우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동시에 트렌드를 맘껏 호흡하며 새롭고 참신한 창작무용을 무대화하는 작업을 지속함으로써 한국적이며 세계적인 창작품을 국내외 무대에서 선도할 것으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82회 정기공연\_소생Regen(2020년 12월 4일~5일)

‘신화’라 하면 보통 어떤 이야기가 떠오를까? 아름다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전쟁의 신 마르스의 사랑 이야기? 부인인 헤라의 눈을 피해 아름다운 사람을 찾아다니는 제우스? 혹은 트로이의 목마나 세이렌의 유혹을 뿌리치려는 오디세우스의 모험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화는 전 인류의 문명에 등장했고, 물론 우리도 가지고 있다. 아마도 한민족의 신화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창조신화일 것이다. 우스갯말로 자가격리에 특화된 민족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100일 동안 쭉과 마늘만을 먹으면서 동굴에 있었던 웅녀와 하늘의 아들 환웅, 그리고 둘의 결실인 단군왕검의 신화가 있다. 이 외에도 박혁거세, 김수로왕, 김알지 등 여러 창조 신화를 알 것이다. 단지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정리된 서사시나 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구전으로 단편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온 만큼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신화로 이해하긴 힘들다.

어쩌면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 고대 그리스 문화의 영향 외의 문명권에서는 대부분 산발적으로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 이유는 어찌보면 당연하다. 신화란 각 고대 문화에서 그저 전해지고 문화로만 재생산되는 것이 아닌, 삶과 밀착하게 연결되어 있는 종교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글 혹은 예술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힘들었고, 이를 정리할 필요도 없었다.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을까. 그들은 중세를 겪으면서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하나님이나 올림포스의 12신을 그저 옛날 이야기의 캐릭터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유럽인들은 그들의 고대 신화를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바라보고, 일종의 문화콘텐츠로서 문학과 그림 그리고 음악 등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신화 속 이야기와 등장인물과 관련된 도상은 오랫동안 신적인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 우리의 신화를 담은 그림 1

하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 동북아시아의 창조자, 복희와 여와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웠지만, 이미 땅에는 인간들이 살고 있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대부분의 신화와 종교에서는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탄생에 대해서 각기 다른 신과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가장 오래된 문명인 황하문명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창조 신화가 전해져왔다. 하지만 그리스로마신화와 같이 통일된 하나가 아닌, 다양한 이야기로 존재한다. 그중 고구려 고분벽화에 표현된 이야기를 소개해보려 한다. 그 주인공은 남매이자 부부인 복희와 여와다. [도판 1]



1 오희분4호묘 천정벽화, 6세기말-7세기초, 중국 길림성 집안 위치  
 <출처:한국콘텐츠진흥원>



복희와 여와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쇠로 된 우리를 만들어 번개의 힘을 가진 뇌공을 낚아채 가 뒀다. 어느 날 아버지가 외출할 일이 생겨, 아이들에게 뇌공을 지키게 하면서 절대 물을 한 방울도 주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나가자, 뇌공은 아이들에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목이 너무 마르니 물을 달라고 말이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당부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힘들어하는 뇌공이 안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결국 물을 조금 주었다. 그러자 뇌공은 바로 힘을 얻어 우리를 뚫고 나왔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이빨을 하나 빼서 주면서, 이것을 땅에 심으면 열매가 열릴 것이라 했다. 그리고는 하늘로 날아올라, 복수하기 위해서 천둥 번개와 함께 엄청난 폭우를 내렸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뇌공이 없어진 것을 알고 쇠로 된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사이 아이들은 뇌공이 일러준 대로 이빨을 땅에 심었다. 그러자 싹이 나고 급속도로 빨리 자라고 두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박이 열렸다.

점점 세상이 물에 잠기자, 아버지는 재빨리 자신이 만든 배에 뒀고 아이들은 박을 갈라 속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갔다. 엄청난 홍수에 아버지의 철배는 하늘의 문까지 가게 되었고, 이 재앙에 대한 항의로 아버지는 배를 크게 두드렸다. 그 소리에 놀라 비가 그치고 물이 빠르게 빠져나가자, 철배가 땅으로 푹 떨어져 아버지는 죽게 되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 다만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남녀가 되었다. 아이들은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며 즐겁게 지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세상에 인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오빠인 복희가 동생에게 부부가 되자고 했다. 동생인 여와는 자신을 잡으면 부부가 되겠노라면서 도망을 다녔지만 결국 복희의 꾀로 동생을 잡았다. 부부가 된 복희와 여와는 어느 날 아이가 아닌 살덩이를 하나 낳았다. 이 살덩이를 어찌할지 몰라서 몇 조각으로 자른 후 종이에 싸서 들고 다녔다. 그러다 바람에 날려 살덩이들이 땅에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복희와 여와는 인간의 시조가 되었다. 그런데 이들의



2 <복희와 여와>, 마에 채색, 188.5X93.2cm, 투루판지역의 아스타나 무덤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야기는 한 가지 버전은 아니다. 각기 신적인 존재로서 세상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투루판지역의 아스타나 무덤에서 출토된 그림을 보면,<sup>[도판 2]</sup> 복희와 여와는 뱀의 꼬리를 가지고 있는 남녀로 표현된다. 그리고 복희는 곡자를, 여와는 컴퍼스를 들고 있어서 각기 세상을 만드는 데 설계자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 해와 달, 삼족오와 두꺼비

고구려 고분벽화에 표현된 복희<sup>[도판 3-1]</sup>와 여와<sup>[도판 3-2]</sup> 역시 뱀의 꼬리를 하고 있는 남녀로 표현된다. 그런데 둘은 각기 까마귀가 있는 해와 두꺼비가 있는 달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중국의 한 대에 많이 만





3-1

3-1 <복희> 오희분4호묘 천정벽화 부분, 6세기 말-7세기 초, 중국 길림성 집안 위치

들어진 화상석에서도 표현되는 것으로, 동북아시아에서는 인류의 시조인 복희와 여와를 해와 달의 신으로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달에 있는 두꺼비는 <산해경>의 ‘회남자’에 나오는 신궁인 예(羿)와 그의 부인 향아(姮娥)의 이야기에서 연유한 것이다.

본래 하늘에는 열 개의 해가 부상수에 걸려 차례로 하나씩 뜨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로 형제이기도 했던 해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너무나 좋아하니 함께 떠오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해들이 한꺼번에 떠오르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메말라가고 불타게 된다. 이에 신은 하늘의 신궁이었던 예에게 땅으로 내려가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명한다. 지상의 생명을 사랑했던 예는 땅으로 내려와 여러 노력 끝에 결국 해를 하나만 남기고 아홉 개의 해를 쏘아버렸다. 하지만 해 역시 신이었기에, 신을 죽인 예는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서 인간과 같이 유한한 삶을 살아야하는 벌을 받게 되었다. 땅을 사랑했던 예는 그러한 삶도 좋았지만, 함께 내려왔던 부인 향아는 하늘로 올라가 무한한 삶을 되찾고 싶었다. 이러한 부인의 마음을 알게 된 예는 서왕모를 찾아가 사정을 말하고 도와달라고 청하게 되었다.

서왕모(西王母)는 불로불사의 여신으로, 삼천 년에 한 번



3-2

3-2 <여와> 오희분4호묘 천정벽화 부분, 6세기 말-7세기 초, 중국 길림성 집안 위치

반도(蟠桃)가 익을 때 신선들을 모아서 연회를 베푼다. 그래서 관련한 여러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그 연회의 모습은 중국의 한 시대부터 우리의 조선까지 유행하는 주제였다. 그중 후에 순조가 되는 정조의 둘째 아들이 왕세자 책봉이 되는 것을 기념하여 관원들이 제작한 <요지연도(瑤池宴圖)><sup>[도판 4]</sup>에도 각 지역의 신선들이 서왕모를 찾아와 축하의 말을 해주는 모습<sup>[도판 4-1]</sup>을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왕세자 역시 장수하고 성왕이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다. 이렇듯 서왕모는 신선들의 추앙을 받는 신이기도 하다. 이러한 서왕모는 예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두 개의 불사약을 주었다. 하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고, 두 개를 다 먹으면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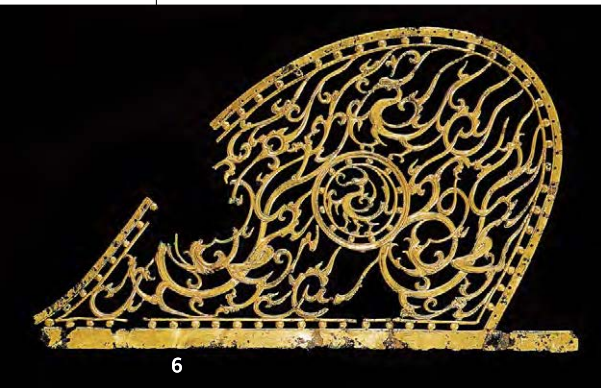
4

4 <요지연도(瑤池宴圖)> 세로 145cm, 가로 54cm, 18세기, 병풍에 채색,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5

5 <삼죽오>, 오회분4호묘 천정벽화,  
6세기 말-7세기 초, 중국 길림성 집안 위치  
<출처:한국콘텐츠진흥원>



6

6 <해뿔음무늬 금동장식>, 고구려,  
평양시 역포구역 진파리7호분 출토



4-1

4-1 <요지연도> 부분

말했다. 이에 예는 부인과 하나씩 나눠 먹고 땅에서 함께 영원히 살면 좋을 거로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 항아에게 말했다. 그리고 잠시 예가 집을 비운 사이, 항아는 욕심이 생겼다. 자신이 불사약 두 개를 다 먹고 천상으로 올라가고 싶었던 것이다. 결국 실행에 옮겼고, 그렇게 항아는 하늘로 올라갔다.

하지만 문득 땅에서 유한하게 살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옥황상제가 있는 궁으로 가지는 못하고 그 옆에 있는 달에 한동안 머물기로 했다. 오로지 방아 찧는 토끼만 있던 달에서 항아는 지상의 남편을 보며, 남편도 올라올 수 있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부인이 약을 모두 먹고 하늘로 간 것을 알게 된 예는 슬펐지만, 그저 자신의 유한한 삶을 살았다. 그 모습을 보고 항아는 죄책감을 느꼈고 그 괴로움에 점점 몸이 변해가면서 두꺼비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는 달에 토끼가 표현되기도 하지만 두꺼비가 들어있다.

달 속 두꺼비는 항아의 후회가 표현되는 듯하다. 하지만 해의 경우 까마귀가 표현되는데, 그 연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다. 다만 까마귀를 동북아시아에서는 태양을 상징하는 길조로 생각해왔다. 그런데 고구려 고분벽화 속 까마귀는 우리에게 익숙한 다리가 세 개 달린 삼죽오이다.<sup>[도판 5]</sup> 이 역시 전해지는 신화는 없지만, 특이하게 고구려와 백제 문화권에서 삼죽오가 많이 표현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구려 고분인 평양시의 진파리 7호분에서 출토된 <해뿔음무늬 금동장식><sup>[도판 6]</sup>을 보면 강렬한 곡선으로 된 불꽃 무늬 가운데에 삼죽오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삼죽오는 고구려의 고분벽화나 백제의 벽돌 등 다양한 곳에 표현되기도 했다.

## 알고 보면 재미있는 우리의 신화

비록 그리스로마신화처럼 다양하게 표현되어 오진 않았어도, 우리의 신화 역시 생활 속 문화로 표현되어 오고 있었다. 그리고 헤라의 질투만큼 항아의 후회도 재밌게 다가오기도 한다.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알아채지 못했던 우리의 신화를 이번부터 조금씩 찾아볼 것이다. 나도 모르게 익숙했던 어떤 이야기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 선조들의 소박하면서도 순수한 믿음이 담겨있을 지도 모른다. 앞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보려 한다.



##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과 뮌헨 오페라축제

### M Ü N C H N E R O P E R N F E S T S P I E L E

글, 사진 **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유럽에서 단연 오페라를 이끄는 것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대표되는 독일어권의 주요 도시들의 오페라 극장이며, 그 중심에 베를린과 빈 그리고 뮌헨이 있다. 오페라가 비록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그 위상이 다르다. 이번 호는 독일 바이에른(Bayern) 주(州)의 주도 뮌헨에 소재한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과 뮌헨 오페라축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바이에른이라는 지명이 조금 낯선 이는 영어로 바바리안(Bavaria)과 동명이며, 우리에게 익숙한 독일의 자동차 회사 비엠베(BMW)가 독일어로 바이에른 자동차 공장(Bayerische Motoren Werke: Bavarian Motor Factories)의 약자이기도 하다.

####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 Bayerische Staatsoper

35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은 바이에른 주(州) 뿐 아니라 독일을 넘어서 문화 전반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예술적 완성도와 임팩트 있는 오페라 무대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화적 공론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약 600,000명의 관객이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을 찾고 있는데, 오페라와 발레를 포함한 400개 이상의 이벤트가 펼쳐지면서 문화도시 뮌헨의 명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40편 이상의 오페라 무대와 20편 이상의 발레가 단일 시즌에 공연되며 콘서트와 가곡 리사이들도 함께 열리고 있다.

객석 수 2,101석 규모의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은 독일에서 가장 큰 오페라극장과 동시에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극장 중 하나이다. 유럽 최고의 오페라축제 중 하나인 뮌헨 오페라축제(Münchener Opernfestspiele)를 주관하면서, 축제의 예술적 액센트를 설정한다. 뮌헨 오페라축제는 뮌헨의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인 옥토버 페스티벌(Oktoberfest)과 함께 도시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바



1. 2. 3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





# Opera

3





4 뮌헨 시내 전경 5 레지덴츠 궁전 내 퀴빌라이 극장 6 도니제티의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커튼콜

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은 3가지 부서로 나뉘어 있는데 자체 오케스트라인 바이에른 국립 오케스트라(Bayerische Staatsorchester)와 발레단인 바이에른 국립 발레단(Bayerische Staatsballet)이 있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자리를 옮긴 키릴 페트렌코(Kirill Petrenko)에 이어 신임 총감독인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Vladimir Jurowski)가 2021년 부터 바이에른 국립 오케스트라를 책임지고 있다.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의 전신은 1653년 조반니 바티스타 마치오니(Giovanni Battista Maccioni)의 라르파 축제(L'arpa festante)가 궁정 극장에서 공연되었을 때 사보이(Savoy)의 공작 부인 헨리에트 아델라이데(Henriette Adelaide of Savoy) 여제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녀는 바이에른의 선제후(라틴어로 프린켑스 엘렉토르 Princeps Elector, 독일어로 쿠르퓌르스트 Kurfürst는 신성로마제국 황제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였던 신성로마제국의 선거인단이다. 선거후라고도 한다)인 페르디난트 마리아와 결혼하여 바이에른의 선제후가 되었다. 그녀는 재임 동안 많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남편과 함께 바이에른의

문화와 복지를 개선하는 데 많은 일을 했다. 그리고 1753년에는 뮌헨 레지덴츠 궁전 내 퀴빌라이 극장(Cuvillies Theatre)을 만들었다. 뮌헨에서 오페라는 프린츠 레젠텐 극장(Prinzregententheater, Prinz-Regenten-Theater, 1901년 완공)과 퀴빌라이 극장에서도 열리지만 보통은 막시밀리안 광장(Max-Joseph-Platz)에 있는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이 메인이다.

### 뮌헨 오페라축제 Münchner Opernfestspiele

뮌헨 오페라축제는 매년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바이에른의 주(州)도인 뮌헨에서 열린다. 7월 말에 시작되는 바이로이트 축제(Bayreuth Festspiele)와 잘츠부르크 축제(Salzburger Festspiele)에 앞서 개최되는 뮌헨 오페라축제는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의 시즌 마지막 주요작품을 요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뮌헨 오페라축제는 메인 극장인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과 프린츠 리젠텐 극장, 퀴빌라이 극장, 그리고 만성인 국정성당(Allerheiligen-Hofkirche)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는

데 오페라 외에도 오페라 공연을 위해 구성된 바이에른 국립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실내악 콘서트가 열리기도 한다. 뮌헨 오페라축제는 매년 미하일 성당(Michaelskirche)에서 전체 로마 가톨릭 교회 예배의 일환으로 합창 콘서트와 함께 공식적으로 개최된다. 축제 하이라이트는 ‘모두를 위한 오페라(Oper für alle)’로 막시밀리안 요제프 광장(Max-Joseph-Platz)에 앉아 있는 야외 관객에게 오페라 작품을 생중계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처 오데온 광장(Odeonplatz)에서 오픈 에어 공연이 해마다 열리고 있다.

뮌헨 오페라축제는 1875년 처음으로 열렸으니 1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3년 피터 조나스 경(Sir Peter Jonas)이 주요 독일어권 오페라극장의 첫 영국인 대표가 되었으며, 2008년에 니콜라우스 바흐러(Nikolaus Bachler)가 대표가 되었다. 2013년부터는 키릴 페트렌코가 음악감독(GMD-Generalmusikdirektor)을 맡아서 뮌헨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2014년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은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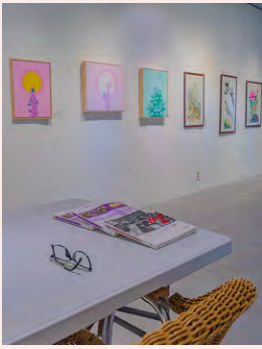
간 오페라월드(Opernwelt) 매거진으로 부터 올해의 오페라 극장(Opernhaus des Jahres)의 영예를 받기도 했다.

2023년 뮌헨 오페라축제는 상반되지만 음악적으로 경쟁하는 두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와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의 작품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모두를 위한 오페라’에서 새로운 프로덕션으로 선보이는 ‘아이다(Aida)’를 만날 수 있으며, 베르디의 오페라 ‘오텔로(Otello)’와 ‘돈 카를로(Dan Carlos)’,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Lohengrin)’과 ‘트리스탄과 이졸데(Tristan und Isolde)’ 등 5대 오페라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헨델(Georg Friedrich Handel)의 오페라 ‘세멜레(Semele)’가 공연되며 프로코피예프(Sergej S. Prokofiev)의 ‘전쟁과 평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의 오페라 ‘코지 판 투테(Così fan tutte)’, 그리고 영국인 작곡가 헨리 퍼셀(Henry Purcell)의 오페라 ‘디도와 아이네아스(Dido & Aeneas)’ 등을 만날 수 있다.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







문화매개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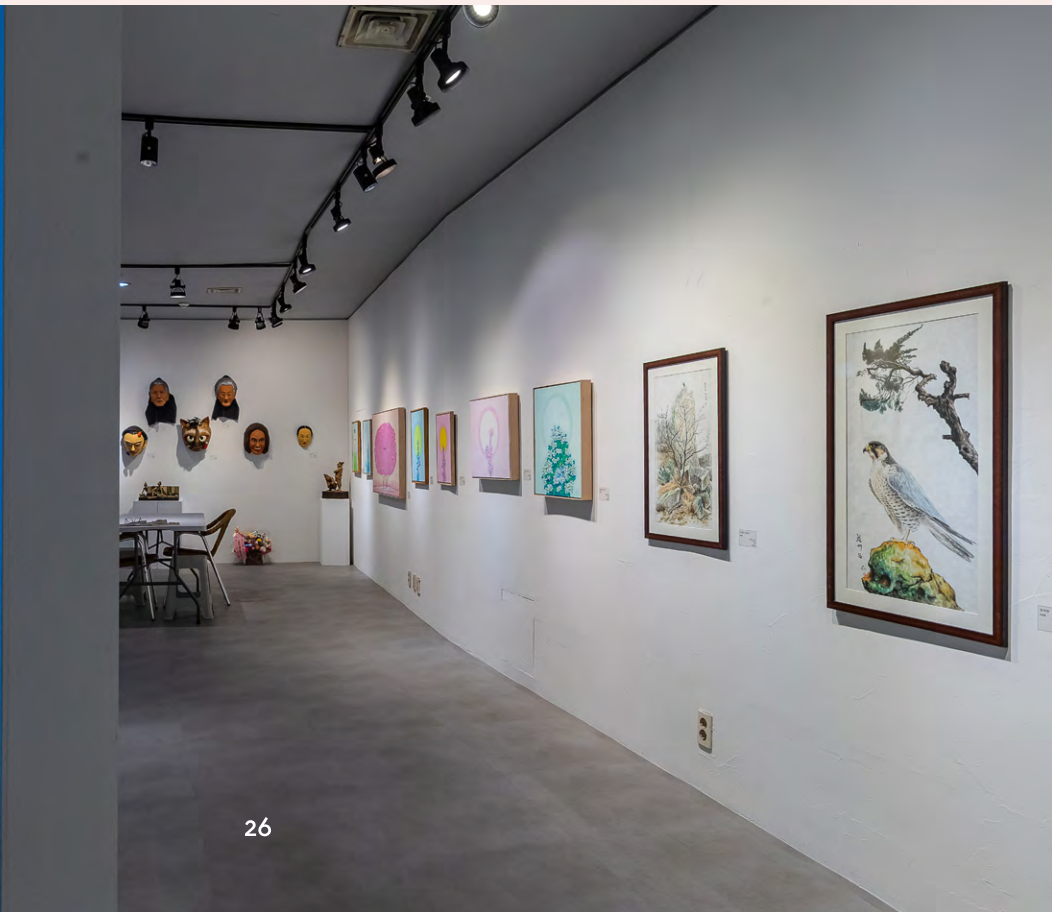


부산문화,  
쌈에서 다시 돌아보자

박나무 자유기고가

지하철 수영역은 조금 재미난 곳이다. 출입구가 16개로 부산지하철 중에서 출구가 가장 많은 역이고, 그만큼 지하에 긴 통로가 있는데 그 길이가 거의 500미터에 이른다. 출구를 잘못 찾아 나갔다가는 다시 그 거리를 돌아오는 낭패를 당하기 쉬우니 주의를 해야 한다. 변화가인 수영교차로 쪽은 1번부터 9번 출입구가 몰려있고, 그 사이에 작은 점포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다. 창고대개방과 상설할인은 왜 수영역 지하로 몰려왔는지는 몰라도 그런 의류판매장들이 제법 많다. 5일장 해 질 무렵처럼 약간은 가라앉은 분위기지만 편하게 구경하기에는 좋다. 크게 흥하지는 않았지만, 또 쇠락이라고 말하기엔 섭섭하다. 그런 수영역 지하상가를 거쳐 계단을 오르면 각종 주점과 식당, 팔도시장이 갑자기 다른 공간에 이동한 것처럼 판판의 세상을 보여준다. 출입구 16개마다 다른 세상이 펼쳐지듯, 인간사도 참 다양하게 전개된다.

그 수영역 지하상가에서 터줏대감처럼 오랜 시간을 지켜온 공간이 있다. 2009년 12월 부산교통공사와 문화예술사업단 BIKI가 손잡고 문을 연 20평 남짓한 공간은, '쌈'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부산의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작품을 걸고, 또 연주를 하던 공간이었다. '쌈수다'는 10년의 세월을 이어온 부산문화의 놀라운 자랑거리였다.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7시가 되면 수영역 지하상가의 쌈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었다.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비평, 기획, 미학 등 각종 다양한 문화에 10년 이상 복무한 예술인들이 초대되어 정해진 틀 없이 이야기를 나눈다. 객석이란 것도 없이 같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친구가 되어있고, 정신차려 보면 시장 어귀 생선구이 집에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초대손님은 예정되지만, 그 손님과 함께할 사람들은 정해져있지 않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지나는 길에 우연히 들렀다가 발길을 끊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것일까, 그보다 더 강력한 역병의 몽니일까? 씬은 그 동력을 계속 이어가지는 못했다. 특별한 후원회나 수익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운영비를 감당하기도 힘들었고, 공간을 지켜낼 사람도 구하기 쉽지 않았다. 10년을 버텼으니 그것이 대단한 일이고, 상찬받아 마땅하다. 엄혹한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온 씬이 최근 재단장한 공간을 뽐내며 재기를 선언했다. 공공미술가 전영주 작가가 대표를 맡기로 했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함께 공간을 직접 리모델링했다. 10년 묵은 공간의 벽은 새롭게 화철이 되었고, 바닥과 천장은 분칠을 마쳤다. 그간의 씬이 이야기 중심의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전시 중심의 공간으로 탈바꿈해 운영

의 묘를 살려볼 생각이라고 한다. 지역의 예술가들에게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청년작가들의 작업을 널리 알리는 데 매개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것. 그 시작은 이석균, 곽영화, 박경효 작가의 '탈·곰·먹·쌈展'으로 기획되었고, 2월 28일까지 문을 열어 두기로 했다.

쌈의 2세대는 이제 시작되었다. 1세대를 계승하고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쌈의 도약이 기대된다. 부산교통공사, 그리고 김상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주도한 세월을 1세대로 볼 수 있겠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쌈은 없었겠지만, 이제 그이들을 넘어서야 할 때가 왔다. 그렇게 세대는 바뀌어가는 것, 아쉬움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 다시 받아든 스케치북처럼 새롭게 그림을 그려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나간 세월의 영욕을 희미한 밑그림으로 삼고, 기발한 상상력과 젊은 힘을 더해 더 좋은 그림을 여러 장 그려낼 수도 있을 것이다. 씬이 과거의 지위를 되찾지 못할 수도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매개공간으로 우뚝 설 수도 있겠지. 수영역의 16개 출입구처럼 다양한 세상과 부산예술의 모습이 씬 속에서 잘 어우러지기를 기대한다.

**문의 문화매개공간 씬 010-2355-8896, facebook.com/artssam**

# INVITATION TO THE

## G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 D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 M

무지크바움	070-7692-0747
-------	---------------

## B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 S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음	557-3369

## E

엑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 C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 H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 B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 K

KBS부산홀	620-7181
--------	----------

## S

SM아트홀	1600-1602
-------	-----------

# ARTS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쓰리보이즈 리턴즈



◆ **인생 2막을 시작하는 60대 친구들의 가슴 뛰는 이야기 '쓰리보이즈 리턴즈'가 2월 10일과 11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밴드 오디션에 도전하는 60대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린 '쓰리보이즈 리턴즈'는 지난해 7월 초연무대를 통해 '고민하는 갱년기 남성들을 위한 연극', '무대 위에서 전하는 중년들의 새로운 성장드라마'라는 호평을 받으며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특히 이번 작품은 극 중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세 배우 강열우, 정승천, 황해순의 자전적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다. 극 중의 세 친구들처럼 20대 젊은 시절, 극단 자갈치에서 함께 활동했던 그들은 각자의 인생을 찾아 극단을 떠났으며, 세월이 흘러 어느덧 60대를 맞았다. 퇴임을 앞두고 인생 후반전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들과 주변의 동년배들이 느끼고 있을 고민과 감정을 연극으로 풀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무대를 기획하게 되었다.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함께하며 청춘의 매순간을 함께 해온 세 친구 상순, 연우, 기천. 학교 졸업과 동시에 각자 생업의 길로 접어들며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그들은 연우의 정년퇴직을 기념해 가진 퇴직 기념 술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나 갱년기에 접어든 자신의 신

체적 심리변화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과거의 빛나던 시절을 회상한다. 그러던 중 그들은 기천이 가져온 전단지에 소개된 중년을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영겁결에 출전하기로 하는데... '쓰리보이즈 리턴즈'는 이제는 알고 있던 것마저 다 까먹는 시점에 또 다시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 어려움과 서로에 대한 사소한 오해들로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하나 고비를 넘어가는 세 친구의 유쾌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이번 작품은 극단 일터의 김기영 연출가가 극작과 연출을 맡았으며, 극중 연우 역에는 부산예술대학교 교수,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강열우가, 상순 역에는 (재)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사업본부장, 부산예술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촌꾼 황해순이, 그리고 기천 역은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역임하고 (사)전문예술법인 남산놀이마당 이사장, 원도심창작공간지원센터장으로 있는 정승천이 맡아 진솔한 연기로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밴드 오디션을 소재로 한 만큼 세 배우 모두가 극중 세 친구들처럼 노래와 악기 연주에 도전하면서 그들의 새로운 인생 제2막을 극 속에 풀어낸다.

**일 시** 2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11일 토요일 오후 3:00 **장 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교향악에서 실내악, 독주로 만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2월 무대

2023년 신년음악회로 계묘년을 힘차게 출발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2월, 정기연주회와 단원들의 독주, 실내악 무대로 꾸며지는 기획연주회로 시민들과 만난다.

바그너와 브루크너  
제597회 정기연주회  
‘사랑과 죽음’

일시 \_ 2월 21일(화) 오후 7:30

장소 \_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_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2월 2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제 597회 정기연주회 ‘사랑과 죽음’이 펼쳐진다. 광주시립교향악단 홍석원 예술감독이 객원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였던 독일 작곡가 바그너와 그의 뒤를 따랐던 작곡가 브루크너의 작품들로 무대를 꾸민다. 바그너는 후기 낭만주의 음악의 서막을 연 작곡가로, 이번 무대에서는 그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전주곡’과 ‘사랑의 죽음’ 관현악 버전을 들려준다. 1막의 ‘전주곡’과 3막에 등장하는 이졸데의 노래인 ‘사랑의 죽음’은 곡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음악으로,



©황필주

콘서트에서는 보통 두 곡이 연달아 연주되곤 한다. 오스트리아 낭만파의 거장 브루크너는 기존 교향곡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선율에 신과 자연을 섬기는 소박한 인간을 담아 세기말 불안을 종교적 색채 가득한 선율로 승화시킨 작곡가이다. 이번 무대에서 연주되는 교향곡 제6번은 그의 중기 교향곡 중 가장 이질적인 곡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강한 느낌과 아름다운 멜로디가 곳곳에 숨어있는 완성도 높은 작품이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브루크너가 작곡한 원본에 가장 가까운 노바크 판본으로 연주함으로써 조금 더 브루크너의 감정에 가까게 다가갈 수 있다.

객원지휘자 홍석원은 한국인 최초로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 오스트리아에서 오페라극장 수석카펠마이스터를 역임했으며,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교향악부터 오페라, 발레, 현대음악까지 모든 영역을 다룰 수 있는, 한국 교향악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휘자의 선두 주자로 평가 받고 있다. 카라얀 탄생 100주년 기념 지휘콩쿠르에서 3위 입상했으며 베를린 도이체 심포니오케스트라,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슈투트가르트 남독일방송 교향악단, 본 베토벤오케스트라 등과 성공적인 연주를 가진 바 있다. 오페라에서

도 두각을 나타내어 독일 라이프치히 오페레타 콩쿠르에서 청중상을 받았고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티롤주립극장의 수석 카펠마이스터로 선임되었다. 귀국 후 홍석원은 평창올림픽 기념 오페라 ‘동백꽃 아가씨(La Traviata)’에 이어 2020년 코로나 시대 세계 최초의 전막 오페라 프로덕션으로 세계 클래식계가 주목했던 국립오페라단의 ‘마농’, 2021년 국립극장 재개관 및 8·15기념 국립오페라단의 ‘나부코’, 2022년 국립오페라단의 ‘시칠리아의 저녁기도’ 한국 초연 등 등 굵직한 오페라 프로덕션을 완벽히 해석했다는 평을 들으며, 유럽 정통 오페라 지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경쾌하고 화려한  
타악양상블의 향연

###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 I



2월 3일 챔버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차별화된 연주로 실내악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 I'  
이 펼쳐진다.

지난 2019년 5월 첫 무대를 시작으로 매  
년 관객과 만나고 있는 '실내악 공장'은 평  
소 정기연주회에서는 감상하기 힘들었던  
실내악 걸작들을 만날 수 있는 무대로, 클  
래식 입문자에서부터 애호가에 이르기까

지 다함께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Cruzin' jamaica',  
'Salamanca', 'The Oregon Trail', '4/4  
for Four' 등 평소 무대에서는 잘 만날 수  
없는 타악 양상블로만 레퍼토리를 구성, 희  
망찬 신년에 어울리는 경쾌하고 화려한 무  
대로 꾸며진다. 부수석 조용길을 비롯해 단  
원 김자연, 박용갑, 객원 배지훈, 성형원, 전  
민욱 등이 출연한다.

일시 \_ 2월 3일(금) 오후 7:30

장소 \_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입장료 \_ 전석 1만원



3월,  
오보에와 피아노의 하모니

### 부산시향의 줌인 I



오보에 고관수



피아노 김재원

부산시립교향악단이 2023년 새롭게 선보이는  
'부산시향의 줌인 I'이 3월 3일 챔버홀에서 펼쳐  
진다. 오케스트라 단원이 아닌 솔리스트로서의  
기량을 선보이기 위한 무대로, 이번 무대에서는  
감각적인 테크닉과 세련된 음악성으로 관객들에  
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오보  
에 수석 고관수와 차세대 클래식을 이끌어나갈 다  
재능한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인 김재원이 함  
께 한다.  
뛰어난 오케스트라 플레이어기도 한 오보이스  
트 고관수는 연세대학교 재학중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 오보에 수석을 시작으로 Neues  
Sinfonie Orchester Berlin, 국립 심포니 오케

스트라, 양평필하모닉 객원수석, 서울시립교향악  
단 단원을 역임했다. 일찍이 유수 콩쿠르에서 입  
상하며 뛰어난 실력으로 두각을 나타낸 고관수  
는 앙상블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이면서 Club M  
앙상블, 뷔에르 앙상블 멤버로 실내악 연주자로  
서도 큰 명성을 얻고 있다.

고관수와 호흡을 맞추는 피아니스트 김재원은  
Club M 앙상블 리더이자 피아니스트, We 필하  
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앙상블  
All that Clazz 피아니스트로 직접 작곡, 연주한  
앨범을 최근까지 발매하며 클래식에서부터 뉴에  
이지, 재즈 등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음악으로 클  
래식 음악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일시 \_ 3월 3일(금) 오후 7:30

장소 \_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입장료 \_ 전석 1만원



# 부산으로부터의 초대

## 2023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 박진홍 음악평론가

### 여섯 번째 열리는 실내악의 향연

지난 1월 3일부터 17일까지 부산문화회관에서는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챔버페스티벌이 열렸다. 필자는 1월 3일과 12일, 두 공연을 찾았다. 탁트인 문화회관 앞 광장을 걸으며,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을 뛰어난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실내악의 향연으로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챔버페스티벌은 모두 7개의 프로그램이 무대에 올랐는데, 유럽과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상급의 국내외 연주자들과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력 있는 연주자들, 그리고 부산예술중학교 및 각 대학 음악학과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매 연주마다 부산지역 음악인들과 음악 전공학생들, 음악 애호가들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서울, 경기를 비롯한 타지역에서 연주를 보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애호가들도 드문 드문 눈에 띄었다.

### 실시간 중계로 감상의 폭이 넓어졌다

이번 챔버페스티벌 프로그램 중 3일과 4일 프로그램은 한경 arteTV에서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를 했다. 여러 이유로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애호가들에게는 현장의 느낌을 고스란히 느끼

며 좋은 연주를 들을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 필자 역시 4일 공연은 생중계로 관람했는데, 연주자의 세심한 몸짓과 표정을 볼 수 있어 현장에 있지 않은 아쉬움을 달래기에 충분했다. 팬데믹 이후, 공연 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이번과 같은 실시간 중계는 앞으로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 한국초연으로 만난 작품들

국제 연주 행사를 통해서 맛볼 수 있는 즐거움 중의 하나가 바로 새로운 곡들을 만나고 감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세 곡의 한국초연 작품들이 무대에 올랐다. 개막공연이었던 3일, <All that Chamber Music>에서는 미국 작곡가 세리던 사이프리트(1984-)의 ‘클라리넷, 현악기와 피아노를 위한 육중주’가 무대에 올랐다. 3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이 곡은 세상일에 지친 한 인간이 거대한 자연 속을 헤매이며 자신을 돌아보고 삶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갖게 되는 여행의 풍경이 떠오르는 작품이었다.

12일, <로렌슈타인 현악 사중주> 공연에서는 헝가리 출신의 작곡가 엠마누엘 무어(1863~1931)의 ‘현악 사중주를 위한 전주곡과 푸가’, ‘현악 사중주를 위한 서정 소곡집 작품 139’가 연주되었다. 이 두 곡은 농도의 차이는 있으나 민족적 색채가 다채롭게 드러나는 작품으로 익숙함과 생경함이 어우러져 연주 기량뿐만 아니라 작품의 형식적 면을 들여다보는 즐거움을 주었다.







###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 리더들의 실내악 향연

개막공연으로 뉴욕 필하모닉,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 미국 퍼시픽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악장과 수석 단원들이 축제의 화려한 막을 열었다. 사이프리의 '육중주'에서는 계속되는 고음에도 안정적이고 정갈한 음색으로 변화하는 리듬을 섬세하게 표현한 클라리넷(백동훈)의 연주가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2악장은 기교적이지는 않지만 미세한 감정선을 잘 조절해서 객석의 숨소리조차 잦아들게 하는 몰입감을 선사했다. 이어진 슈베르트 '5중주'에서는 열정이 가득하지만 그럴수록 더 단호하고 냉정한 표현으로 내면을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 연주에서는 특히 요나 김의 첼로 연주가 인상적이었다. 음악의 흐름을 눈빛과 몸의 움직임으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충만하면서도 정제된 특유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멘델스존 '8중주'에서는 디글자 형태로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왼쪽과 오른쪽에 자리하고 두 대의 첼로가 중앙에 단을 놓고 있었다. 미셸 김의 도도하고 단호한 움직임과 활기차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데니스 김의 표현은 대조적이었다. 비올라의 간결하면서도 풍부한 울림을 갖는 피치카토, 소리의 간극을 충실히 메워 주고 넓게 포용하는 첼로의 움직임이 감동적인 하모니를 만들었다. 마지막 악장의 연주에서는 끝음의 여운이 사라지는 짧은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감동 섞인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 로젠슈타인 스트링 콰르텟

무어의 '전주곡과 푸가' 연주에서는 헝가리의 색채가 짙게 배어 있는 곡을 무게감 있고 촘촘한 구성으로 연주했는데, 특히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 부수석 알렉산더 크낙의 바이올린 음색이 깊이 와닿았다. 로젠슈타인 현악 사중주에서 바이올린을 맡은 이수은은 여유 넘치는 표정과 눈빛으로 연주했는데, 멜로디를 주고받음에 있어서 다른 연주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완성도를 높은 연주를 보여 주었다. 두 번째로 연주된 '서정 소곡집 139번'도 민족적 색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흔히 듣던 실내악곡과 대조적으로 색다른 감상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는 곡이었다. 터질 듯한 감정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삼키는 모습에서 마치 독일 가곡 연주에서 받는 느낌을 그대로 떠올릴 수 있었다.

후반부에는 차이콥스키의 '현악 육중주', '플로렌스의 추억'을 로젠슈타인 현악 사중주와 비올리스트 황여진, 첼리스트 홍승아가 함께 연주하였다. 황여진과 홍승아는 다채로운 몸짓을 통해 음악의 흐름과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잘 전달해 주었다. 2악장은 비올라와 첼로가 소통하며 선율을 잘 주고받으면서 서정적이면서도 극적인 전개를 잘 전해 주었다. 3악장은 러시아적인 특유의 분위기가 테크니컬한 리듬 연주에 잘 스며나왔다. 곡 중 분위기의 전환이 매우 유연하게 이루어졌고 힘 있는 전개와 그와 더불어 여린 선율들이 선명하게 대비되었다. 앵콜곡으로 우리 가곡 '청산에 살리라'를 연주하며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을 기념하다

### 부산시향과 함께하는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 정두환 문화유목민, 음악평론가

백양산에서 발원하여 성지곡에서 시작한 동천, 도심천에서는 보기 드문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곳, 범일교 옆 황량한 먼지가 날리던 범일동 벌판에 1973년 10월 10일 당시 공연장 최고의 시설과 규모를 자랑하며 부산시민회관이 개관하였다. 이곳은 1962년 창단된 부산시립교향악단, 1972년 창단된 부산시립합창단, 1973년 전국 최초로 창단한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소년소녀합창단까지 한 곳에 모이질 못하고 연습장 및 공연장을 서로 다르게 사용하며 흩어졌던 단체들이 부산직할시립예술단이라는 현판을 달고 한 곳에서 연습과 공연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이기도 했다.

시간이 쌓이면서 공연장의 시간도 쌓여 건물은 노후화되고, 1988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의 개관과 더불어 공연문화의 중심축이 부산문화회관으로 이동하면서 부산시립예술단 역시 자연스럽게 부산문화회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곳에서 대부분의 공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난 1월 10일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부산문화회관으로 옮겨진 이후 부산시민회관에서는 처음 열리는 신년음악회였던 것으로 필자는 기억한다. 과거 부산 공연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여전히 부산의 대표적인 공연장으로

손색이 없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설 노후화와 일반 관객들의 새로운 신축 공연장에 대한 호감, 기획사 및 연주자들의 보다 좋은 시설에 대한 선호로 부산시민회관은 자연스럽게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느낌이나 여전히 공연장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부산의 만형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번 공연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창단 61년과 부산시민회관 개관 50년이 만나 이루어진 연주였기에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보다 가벼운 음악으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관객들에게 선물하였다.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로 출발한 연주는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슬라브 무곡' 작품 46 중 제8번, 작품 72 중 제2번,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천둥과 번개' 폴카, '트리치 트라치' 폴카에 이어 대니 구의 바이올린과 송영훈의 첼로, 박종해의 피아노가 함께하는 루드비히 판 베토벤의 '삼중협주곡' 중 1악장, 그리고 공식 프로그램의 마지막 곡, 에드워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제1번' 등으로 이루어져 전반적으로 연주자도 관객도 가볍게 즐기는 신년음악회를 꾸며졌다. 베토벤의 '삼중협주곡' 이후 이어진 앙코르 곡도 바흐의 '평균율 프렐류드'를 타고 흐르는 구노의 '아베마리아'로, 선배 작곡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승화시킨 최고의 명곡을 들려줌으로써 부산의 공연문화 50년 최고의 공연장을 지켜온 시간 위에 젊은 연주자들의 아름다운 선율로 공간을 채우는 시간과 공간의 만남을 연





출하였다. 범일동에서 만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반가웠는지 관객들의 이어지는 앙코르 요청에 지휘자 최수열과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비제의 '카르멘' 서곡, 이범희 곡 '부산찬가',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 등 3곡의 앙코르로 화답해 주었다. 특히, '라데츠키 행진곡'에서는 관객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박수로 연주에 동참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함 속에 즐거움으로 묻어 나왔다.

“시간이 쌓여 역사가 되고, 우리는 그 역사와 의미를 바르게 읽어야 한다.” 혹시 오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모든 것을 같은 자로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며, 그 시간이 지나간 자리는 역사가 된다. 우리가 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지나간 시간, 역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동반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번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와 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의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공간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려주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해하지만,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그 쌓였던 시간 속 아래 계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의 주변 상황과 전후 관계를 이해하는 힘이 필요하다. 지난 50년 동안 부산시민회관은 공연장 최고였던 자리와 지금의 자리를 비교할 것이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최고였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다 같이 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세계 유수 공연장들은 그저 시간이 쌓여서 최고의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다. 모두의 노력이 시간과 더불어 쌓은 덕이다.

교통의 요충지인 부산시민회관이 부산 최고의 공연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신년음악회를 기회로 모두 함께 새로운 50년, 시간의 역사를 쌓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일 시** | 2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4일 토요일 오후 2:00, 7:00, 5일 일요일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4만원, OP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8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갖춘 월드클래스 쇼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뮤지컬의 도시 브로드웨이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브로드웨이 42번가'는 시골 출신 '페기 소어'가 브로드웨이 댄서가 되기 위한 꿈을 향한 여정을 담은 작품이다. 국내에는 지난 1996년 초연된 이후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스테디셀러 뮤지컬로, 막이 오르는 순간 압도적인 탭댄스 군무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국내 초연 26주년을 맞이한 이번 무대에서는 더욱 더 화려한 라인업으로 부산 관객들을 만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 I**

**일 시** | 2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차별화된 연주로 실내악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 I'. 평소 정기연주회에서는 감상하기 힘들었던 실내악 걸작들을 만날 수 있는 무대로, 클래식 입문자에서부터 애호가에 이르기까지 다함께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타악기 파트 단원들이 출연, 평소 무대에서는 잘 만날 수 없는 타악 앙상블로 희망찬 신년에 어울리는 경쾌하고 화려한 무대를 펼친다.

- 연주/조용길(부수석), 김자연, 박용갑(이상 단원), 배지훈, 성형원, 전민욱(이상 객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7회 정기연주회**  
**사랑과 죽음**

**일 시** | 2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광주시립교향악단 홍석원 예술감독이 객원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7회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였던 독일 작곡가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전주곡', '사랑의 죽음' 관현악 버전에 이어 그의 뒤를 따랐던 작곡가 브루크너의 '교향곡 제6번'을 원본에 가장 가까운 노바크 판본으로 들려준다. 객원지휘자 홍석원은 한국인 최초로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 오스트리아에서 오페라극장 수석 카펠마이스터를 역임했으며, 교향악부터 오페라, 발레, 현대음악까지 모든 영역을 다룰 수 있는 차세대 지휘자의 선두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희망을 노래하다**

**일 시** | 2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매년 단원들의 기량향상을 위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로 합창, 중창, 솔로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난다.

**프로그램**  
아름다운 그대 모습, 오 사랑하는 나의 님(도나우디), 네모의 꿈(김재훈 편곡), 사운드 오브 뮤직 메들리(이현철 편곡), 곡 안아줄래요(윤학준), 별(조성은), 음악을 위하여(조혜영) 등 수록

- 반주/이경미, 최우림 • 성악지도/김희정
- 독창/김나연, 김지인, 김보영, 진정화



**양옥진 첼로 독주회**  
**슈베르트:겨울나그네**

**일 시** | 2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IPB 070-8018-8303



미국 뉴욕콘서트리뷰로부터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와 멜로디가 나의 귀와 가슴을 어루만졌다'라고 호평받은 첼리스트 양옥진 독주회. 특히 이번 무대는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나그네'를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유사한 첼로의 깊은 울림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양옥진의 감성적인 첼로 선율과 서정적이고 섬세한 피아니스트 박민선의 연주로, 새롭지만 감동적인 '겨울나그네'를 느껴볼 수 있다. 양옥진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을 역임했으며, 현재 인제대학교 관현악과 교수와 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Wonder Cello에서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박하나 플루트 귀국 독주회**

**일 시** | 2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스튜디오 ILYA 010-9878-7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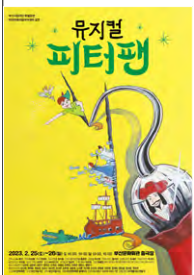


많고 깨끗한 음색과 풍부한 음악성을 겸비한 플루티스트 박하나 귀국독주회. 부산예중·예고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과정을 조기졸업하고 도독, 로스톡 국립음대 석사과정, 베를린 한스아이스러 국립음대 실내악 석사과정을 만점졸업하고 로스톡 국립음대 최고 연주사과정을 최고점수로 졸업하며 전문연주자로서 탄탄한 기반을 다진 박하나의 일찍이 국내외 다수 콩쿠르를 석권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박하나의 북독일 로스톡 필하모니 부수석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Flute East Trio 멤버로 세계 각지에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장 마리 르클레르를 비롯해 브렛 딘, 루이지 워그, 슈베르트, 앙드레 플라베의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문재원 • 플루트/이승호

###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피터팬

일 시 | 2월 25일 토요일 오후 4:00, 7:00,  
26일 일요일 오후 1:00, 4: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그동안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작품을 꾸준히 선보였던 부산시립극단의 어린이 뮤지컬 '피터팬'.

특히 이번 작품은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공연예술 활동의 직접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시립극단이 마련한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수료생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이다.

오디션을 통과한 17명의 어린이 배우들은 전문 스태프로부터 7주간 노래와 무용, 연기 연습과정을 거친 후 부산시립극단 배우들과 무대에서 앙상블을 이루게 된다.

### 클래식과 뮤지컬 그리고 팝페라의 밤

일 시 | 2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우리에게 친숙한 클래식에서부터 뮤지컬, 팝페라까지 다채로운 장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클래식과 뮤지컬 그리고 팝페라의 밤'.

17세기 카스트라도 음성을 완벽히 재현해 내는 독보적인 팝페라 가수인 정세훈을 비롯해 소프라노 김소율, 정혜리, 테너 박성백, 뮤지컬배우 이하경, 조상용, 피아니스트 김경미가 출연, 다채로운 무대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줌인 I

일 시 | 3월 3일(금)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이 2023년 새롭게 선보이는 '부산시향의 줌인 I'.

오케스트라 단원이 아닌 솔리스트로서의 기량을 선보이기 위한 무대로, 첫 무대에서는 감각적인 테크닉과 세련된 음악성으로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오보에 수석 고관수와 차세대 클래식을 이끌어갈 다재다능한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인 김재원이 함께 한다.

#### 프로그램

카를 바흐/오보에 소나타 사단조 Wq.135  
브리튼/템포랄 변주곡  
실베스트리니/오보에를 위한 6개의 연습곡  
슈렉/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바장조  
작품 13 등

### 부산시민회관

### 뮤지컬 브레드이발소 대결! 최고의 이발사

일 시 | 2월 4일-5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오후 4:30 **대극장**  
입장료 | 1층석 6만원, 2층석 5만원  
(24개월이상 관람)  
문 의 | (주)티엔에스컴퍼니 1544-1555



2019년 애니메이션으로 선보인 후 시즌3까지 방영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보여온 '브레드이발소'를 뮤지컬로 제작한 무대.

오늘도 손님들로 가득한 브레드이발소. 예전의 동료이자 라이벌이었던 바케트가 해외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브레드에게 다시 도전장을 내미는데... 무뚝뚝하고 자기중심적이지만 끈경에 빠진 이웃을 보면 남몰래 챙겨주는 따뜻한 감성의 소유자인 천재 이발사 브레드를 주인공으로, 화려한 영상무대와 신나는 음악, 그리고 흥미진진한 대결 스토리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쓰리보이즈 리턴즈

일 시 | 2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11일 토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인생 2막을 시작하는 60대 친구들의 가슴 뛰는 이야기 '쓰리보이즈 리턴즈' 밴드 오디션에 도전하는 60대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린 '쓰리보이즈 리턴즈'는 지난해 7월 초연무대를 통해 '고민하는 갠년기 남성들을 위한 연극', '무대 위에서 전하는 중년들의 새로운 성장드라마'라는 호평을 받으며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특히 이번 작품은 극 중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세 배우 강열우, 정승천, 황해순의 자전적 이야기가 담긴 작품으로, 진솔한 연기로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 연출/김기영

### 부산시립무용단 창단 50주년 기념 특별공연 The 50 Time to Dance

일 시 | 2월 25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무용단 창단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

지난 1973년 2월 25일, 전국 최초의 시립무용단으로 창단된 부산시립무용단은 그동안 우리의 전통춤을 역동적이면서도 신명나는 춤사위로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한 작품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창단 5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행사와 축하공연을 통해 춤으로 반세기를 이어온 시립무용단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50년을 전망해본다.

#### 프로그램

태평무, 고혹(2021년 본색), 학이여 그리움이어 (2022년 본색), 오고무

음악

## 2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4661~4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는 금정문화회관의 대표 레퍼토리 프로그램 '금정수요음악회' 2월 무대.



**1일 이지연 바이올린 리사이틀**  
따뜻한 음색과 풍부하고 파워풀한 연주력을 지닌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연 리사이틀.

이지연은 현재 금년새뮤직센터 앙상블 연주자, GMC 챔버오케스트라 수석, 부울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퀴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공식 반주자 및 솔리스트로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타카시 사토와 함께 베토벤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제4번 작품 23'을 비롯해 라벨, 에이미 비치, 그리그의 곡을 들려준다.



**8일 Jouer 베이스 앙상블 연주회**

4대의 더블베이스와 비올라, 첼로로 구성된 Jouer 베이스 앙상블의 무대. 겨울과 잘 어울리는 현의 중후한 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 'G선상의 아리아'를 비롯해 보테시니, 로시니, 드보르작, 린스키 코르사코프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더블베이스/윤민우, 박예송, 하승연, 이창규
- 비올라/천재현 • 첼로/이강수



**15일 아티스타 Classic, Fall in Jazz**

반도네온, 클래식 기타, 콘트라베이스, 퍼커션 등 매력적인 리듬과 선율로 재즈의 매력을 선사하는 특별한 무대.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프랑스의 그래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랑프리 디스크'를 여섯 차례나 수상한 프랑스의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클로드 볼링의 대표곡들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Tendre, Baroque and Blue, Veloce, Africane, Hispanic Dance, Irlandaise, Sentimental, Madrigal, Gaylanchoic

- 플루트/황미리 • 피아노/김재준
- 반도네온/김종완 • 클래식기타/김경태
- 콘트라베이스/김대경 • 퍼커션/이영훈



**22일 피아니스트 홍선화 독주회**

명확한 해석과 미학적인 음색으로 관객의 감성을 이끌어내는 연주로 사랑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홍선화의 무대.

홍선화는 현재 부산피아노 듀오협회, 부산피아노

연주가클럽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신라대학교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프로그램

하이든/피아노 소나타 제62번  
브람스/간주곡 작품 118 제1번, 제2번  
레스피기/독주 피아노를 위한 6개의 소품  
라흐마니노프/이탈리안 폴카

## 이정혁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2월 3일 금요일 오후 6: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이정혁 010-8321-2372



따뜻한 감성과 다채로운 표현력, 파워풀한 연주로 호평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정혁 독주회.

어려서부터 부산음악콩쿠르, TBC음악콩쿠르, 서울오케스트라콩쿠르, 부산예술고등학교콩쿠르 등에서 상위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낸 이정혁은 앙상블 연주에도 큰 관심을 가지면서 앙상블 과르텟 'Adler', 앙상블 쿼텟 'Luce' 멤버로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정혁은 그동안 더하우스콘서트 주최 원먼스페스티벌과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음악인 시리즈-라이징스타 연주 및 콘체르토 컴피티션 파이널 무대에서 서울챔버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가졌으며 통의동클래식 영아티스트 독주회, 금호문화재단 금호영아티스트를 통해 호평과 찬사를 받았다. 현재는 유학 준비와 함께 수안 교회에서 반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 옥샘 하모닉 오케스트라 제17회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4일 토요일 오후 3: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예술키획 010-4909-7444



동래초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옥샘 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지난 2005년 결성된 옥샘 하모닉오케스트라는 매년 2월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장애인·노인 복지 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음악회,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해오고 있다.

### 프로그램

- 하이든/놀람 교향곡
- 네이 로사로우/마림바 협주곡 제1번 1악장
- 슈트라우스 1세/라데츠키 행진곡
- 차이콥스키/슬라브행진곡 작품 31 등
- 지휘/박진홍 • 마림바/성리교

## 제49회 가람초청음악회 모노음악극 마중

일 시 | 2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가람아트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가람아트홀 010-9391-5025



테너 이창원과 피아니스트 조아라가 함께하는 모노음악극 '마중'.

이창원은 고신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오페라 및 뮤지컬, 연극, 드라마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왔으며, 현재 문화공작소 빈체로

대표로 있다.

조아라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이태리 Accademia di Roma 반주과를 졸업하고 현재 전문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가곡과 민요로 구성된 모노음악극 '마중'으로 관객과 만난다.

### 프로그램

박연폭포, 봄쳐녀, 나물캐는 처녀, 신고산타령, 목련화, 명태, 연, 마중, 못잊어, 삶이 그대를 속일 지라도



###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나누는 희망의 노래 콘서트 함께

일 시 | 2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초대(휴폐이지 선착순)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한국메세나협회의와 공동 주관으로 장애·비장애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마련되는 콘서트 '함께'. 예술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자 마련된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 최초 장애, 비장애 통합 오케스트라인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관객과 무대,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하나되는 삼위일체의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2015년 첫 발을 내딛은 트리니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리고 장애 예술인 가수 신재혁, 뮤지컬 배우 신영숙이 출연, 우리에게 친숙한 곡들로 관객과 만난다.

- 지휘/최다정 • 진행/고은령
- 참여작가/강선아, 권한솔, 김채성, 이다래, 정성원

### 기장청소년오케스트라 제20회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11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기장청소년오케스트라 010-3111-9211



기장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구성된 기장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지난 2000년에 창단하여 올해로 창단 23주년을 맞는 기장청소년오케스트라는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군민의 날, 차상문화제, 기장군민을 위한 별빛음악회 등 기장에서 열리는 축제는 물론 초청연주회, 봉사연주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휘자 홍성택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김아름, 테너 박성백의 협연으로 관객들에게 다양한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홍성택
- 소프라노/김아름 • 테너/박성백

### 부산사대부고동문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11일 토요일 오후 2: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문 의 | 신창용 010-3777-2304

지난 2005년 부산사대부고 동문들로 결성된 부산사대부고동문합창단의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 '나사나노(나의사랑 나의노래)'라는 애칭을 지닌 부산사대부고동문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개교 50주년을 맞아 학창시절 추억의 노래에서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가곡과 가요를 들려준다.

#### 프로그램

- 마중, 시간에 기대어, 남촌, 아름다운 사람, 그날이 오면, Bravo My Life, 친구여 등 수곡
- 지휘/채범석 • 반주/김보혜
  - 특별출연/나눔행복합창단



### 양상블 카메라타 창단연주회 사정, 그리고 밤

일 시 | 2월 11일 토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양상블 카메라타 010-4189-7947



피아니스트 김정주, 김하림, 이수연, 바리톤 박상현 등 대연중학교 43회, 44회 졸업생으로 구성된 음악단체 '카메라타'의 창단무대. 중학교 동문이라는 인연으로, 음악 전공자뿐 아니라 비전공자들까지 음악 사랑으로 함께 뭉친 '카메라타'는 이번 무대에서 클래식 피아노와 보컬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시대의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서정적이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슈베르트/연가곡 '겨울나그네' 중 봄날의 꿈, 여관 리스트/사랑의 꿈 제3번  
 슈만-리스트/현정 작품 25  
 드뷔시/작은 모음곡 L. 65 등

### 테라스음악회 지브리스페셜

일 시 | 2월 11일 토요일 오후 2:00  
 첼리스트의 서재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첼리스트의 서재 010-5029-5807



계명대학교 관현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첼리스트 이명로의 테라스음악회. 송정에 위치한 문화공간 '첼리스트의 서재'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대표 애니메이션에 수록된 OST를 들려준다. 체코 프라하 국립음악원에 전액국비장학생으로 입학하기로한 이명로는 그동안 체코 바츨라프 하벨 대통령 추모 기념공연, 체코 로체코비츠 성 드보르작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등 체코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으며, 대구 MBC 찾아가는 음악회 객원수석, 양상블 Schwach relz 악장, 계명심포니 오케스트라 첼로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 피아노/박주희

### 피아노양상블 프로인트M 창단연주회

일 시 | 2월 14일 화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프로인트M 010-9885-9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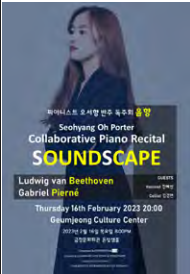


부산예술고등학교 음악학과 동문인 피아니스트 강형은, 김민주, 신희정, 윤지영으로 구성된 피아노양상블 프로인트M의 창단연주회. 단원 모두는 현재 음악 대학을 졸업하고 연주 및 강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창단연주회는 하나의 피아노에서 두명의 연주자가 연주하는 '1 piano 4 Hands' 무대로 꾸며진다.

**프로그램**  
 브람스/슈만 주제에 의한 네 손을 위한 변주곡 폴랑크/네 손을 위한 소나타 FP8  
 슈베르트/네 손을 위한 환상곡 바단조 D.940  
 생상스/죽음의 무도

## 피아니스트 오서향 반주 독주회

일 시 | 2월 16일 목요일 오후 8: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문 의 | 오서향 010-9320-4581



서울 앙상블 NUOVO 반주자, 부산홀트심포니오케스트라 객원, 경남듀오협회, 피아스트라, 지음회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오서향 반주 독주회.

동의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브랜드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수학한 오서향은 Brandon Festival of the Arts Competition 현대음악 부문 1위, 고전소나타 부문 3위, 부산듀오콩쿠르 2위 및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레이디스필 앙상블, 앙상블 Fleur 멤버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전해빈, KNN 방송교향악단, 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는 첼리스트 김경연과 함께 베토벤 '첼로소나타 제3번'과 피에르네 '피아노트리오 작품 45'를 들려준다.

## 프렌들리 콘서트 우정

일 시 | 2월 17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지석 010-3650-4162



신지웅(베이스 바리톤), 박동준(피아노), 정민제(피아노), 김지석(바리톤), 김민우(국악타악), 박찬규(피아노) 등 부산예고 27기 동문들로, 10년가지 친구들이 함께하는 프렌들리 콘서트.

고등학교 졸업 후 7년만에 함께 한 자리로, 10년지기 친구들의 친한 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피아노와 성악, 사물놀이 등 다양한 장르와 편성으로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다.

### 프로그램

슈만/크라이슬레리아나 작품 16  
 뒤파르크/슬픈 노래  
 라흐마니노프/피아노 소나타 제2번 3악장  
 삼도사물놀이(장구 김민우, 팽과리 조대근, 북 김평섭, 징 김경훈)

## One Piano Two Pianists 함께 가는 네 번째 이야기

일 시 | 2월 18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박나희 010-3736-7175



한 대의 피아노에서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피아노 음악을 소개하고자 마련된 'One Piano Two Pianists' 네 번째 무대. 'One Piano Two Pianists'는 지난 2019년 하우스 콘서트로 첫발을 내딛은 후 현재는 클래식 음악이 관객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전문 연주자가 해설과 함께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지은, 박나희, 오현지가 대중에게 친숙한 작품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관객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이야기를 들려준다.

## 바리톤 문정현 독창회

일 시 | 2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이지현 055-761-0916



매력적인 음색과 깊이 있는 음악성을 지닌 바리톤 문정현 독창회.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도독, 만하임 음대에서 석사과정과 최고 연주과정을 졸업한 문정현은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오페라는 물론,

시의 정서를 다양한 색깔로 표현해내는 가곡 분야에서도 남다른 빛을 발하고 있다.

현재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로 있는 문정현은 이번 무대에서 슈베르트 연가곡 '겨울나그네'를 들려준다. 빌헬름 뮐러의 시에 슈베르트가 곡을 붙인 '겨울나그네'는 실연당한 주인공이 겨울에 정착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감정을 주로 노래한 곡으로, 총 24개의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 피아니스트 박정난 제자들과 함께하는 클래식 여행 시리즈 1

일 시 | 2월 24일 금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박정난 010-2395-1103



동의대학교, 동의대학교 산업문화대학원, 신라대학교, 부산예술중학교 외래교수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정난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2023년 신년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독주, 듀오 등 다채로운 편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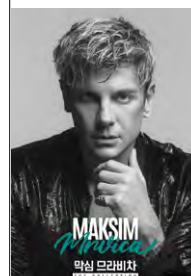
클래식 여행을 떠난다.

피아니스트 박정난은 독일 하이델베르그음대 전 문연주자과정 피아노과 석사과정 및 실내악 반주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겨울나그네' 전곡 시리즈 독주회를 비롯해 한국·헝가리 수교 25주년 기념음악회, 금정문화회관 수요음악회, 서울 부암아트홀 초청 토요일음악회, MBC 목요일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연주/김민승, 박시후, 이주빈, 이주담 외

## 막심 므라비차 The Collection 부산공연

일 시 | 2월 25일 토요일 오후 7:30  
 부산백스코 오토리움  
 입장료 | VIP석 16만원, A석 13만원  
 B석 12만원, C석 9만원  
 문 의 | Harmonie International 010-7348-3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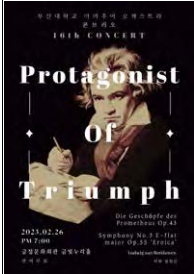
전 세계 57개국에서 4백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고를 기록한 세계적인 크로스오버 피아니스트 막심 므라비차 부산공연. 크로아티아 출신의 피아니스트인 막심 므라비차는 다양한 악기에 피아노를 접목한 크로스오버

음악 선bio이며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으며, 특히 특유의 격정적인 연주와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5년만에 한국을 찾는 므라비차는 이번 무대에서 고전 클래식 곡에서부터 화려한 퍼포먼스와 다양한 악기로 재해석된 영화 메인 테마곡, 그리고 퀸, 콜드플레이, 존 레전드 등 유명 가수들의 대표곡들을 들려준다.

### 부산대학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Con brio 제16회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26일 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Con brio 010-9175-8089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부산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부산대학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Con Brio의 정기연주회. 지난 2013년 3월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매 학기마다 다양한 주제의 연주회를 가져오고 있는 콘브리오는 현재 40여 명의 단원들이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매주 두 차례 모여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Con brio'란 '생기있게'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 프로그램

베토벤/발레음악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모음곡  
베토벤/교향곡 제3번 '영웅'  
• 회장/조해량 • 악장/김민주  
• 지휘/정현진 • 지도교수/차의영

### 무지카아니베가 들려주는 두대의 그랜드 피아노 음악 with Storytelling

일 시 | 2월 26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무지카아니베 010-9260-2912



고민주, 손유진, 이재은, 박정연, 류수정 등 5명의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무지카아니베가 마련하는 2023 신년음악회. 지난 2016년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4차례 정기연주회와 초청연주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무지카아니베는 클래식 음악에서부터 팝, 영화, 드라마 OST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피아노 앙상블로 연주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특별히 관객과 함께 선정한 여러 장르의 음악을 두 대의 그랜드 피아노를 통해 들려준다.  
• 스페셜 게스트/하유진(바이올린), 김희은(첼로), 황이슬(드럼)

### 제491회 가람 초청음악회 2023 폴리포니 기타듀오 봄을 여는 음악회

일 시 | 2월 26일 일요일 오후 7:00  
가람아트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가람아트홀 010-5489-2913



기타리스트 서승완, 김경태로 구성된 폴리포니 기타듀오의 무대. 지난 2005년 결성된 폴리포니 기타듀오는 클래식과 영화음악, 국악, 남미 무곡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연주로, 각종 기타 페스티벌을 비롯해 방송국 초청연주, 국제음악제 프린지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12년과 2015년, 2016년에는 통영 윤이상국제음악제 프린지에 참가, 세 차례 라이징 스타로 선정된 바 있다.  
**프로그램**  
Cavatina, Milonga al Sur, 인생의 회전목마, Beloved, 아랑페즈 협주곡, Nuovo Cinema Paradiso, Over the Rainbow 등

###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하모니카 랩소디

일 시 | 2월 28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커피 포함)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다채로운 주제와 장르로 만나는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2023년 첫 무대. 우리에게 친근한 악기인 하모니카가 연주로 천상의 화음을 들려줄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인 최초 하모니카 국제콩쿠르 우승자인 박종성과 감성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조영훈이 만나 감동이 있는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전공 교수이자 음악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홍승찬의 해설로 품격높은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 연극 코믹연극 택시안에서

일 시 | 1월 1일(일)-3월 26일(일) 수-금요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30, 6:00(월-화요일 공연없음) 해바라기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문의 | 극단 바라 1600-1716



감동과 반전이 있는 로맨틱 코미디극 '택시안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연애 초보 하영과 소희는 연애를 시작하지만 만남이 길어질수록 서로 지쳐가고 결국 두 사람은 이별을 하게 된다. 이별의 상처로 소희는 한국을 떠날 결심을 하고 뒤늦게 후회가 밀려온 하영은 소희를 만나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타는데...  
결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 하는 연극 '택시안에서'는 택시안에서 일어나는 택시기사 민수와 손님 하영의 85분간 리얼타임 연극답게 속도감 있는 전개와 코믹한 상황으로 극의 재미를 더한다.

### 뮤지컬 런던레코드

일 시 | 2022년 12월 16일(금)-2023년 2월 28일(화)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문의 | 엠스테이지 010-8332-1830



조용필, 이문세, 이승철 등 10여 년 동안 콘서트 연출을 맡았던 김인성 연출가가 극작, 작곡, 연출을 맡은 뮤지컬 런던레코드. 특히 이번 무대는 K-Pop을 좋아하는 전 세계인의 취향에 맞추어 작곡된 최신 트렌드 음악들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런던 외곽에 위치한 낡고 오래된 레코드 샵, 주인인 존 앞에 방금 세계 일주를 마치고 돌아온 찰리와 오디션에 떨어진 스킨릿이 찾아온다. 공통점이라고는 없는 이 세 명의 만남은 음악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 주며 한 팀이 되어간다.



## 연극 나의 PS파트너

**일 시** | 1월 5일(목)-3월 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4만원(만 18세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지성, 김아중 주연의 동명의 영화를 무대화한 연극 '나의 PS파트너'. 5년간의 긴 연애로 시들해진 연인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한 윤정 자신의 모든 개인기(?)를 선보이지만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내 남자가 아닌데... 수화기 너머로 각자의 연애와 일상 등 속 깊은 대화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지는 두 사람, 과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연극 '나의 PS파트너'에서는 오직 성인만 공감할 수 있는 꿈과 현실, 연애와 결혼, 그리고 사랑에 관해 거침없고 솔직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 연극 불편한 타이밍

**일 시** | 1월 5일(목)-4월 9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공휴일 오후 2:30, 5:0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만 15세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세 남자가 벌이는 좌충우돌 한바탕 소동을 통해 웃음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코미디극 '불편한 타이밍'. 와이프가 친절에 간 틈을 타 친구 오후와 강건을 초대한 정민. 광란의 밤을 보내고 다음날,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집주인 정민이 사라졌다. 그들 앞에 나타난 시체와 정체모를 여자, 그리고 조폭까지, 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영화 '행오버'를 패러디한 '불편한 타이밍'은 특히 심 없이 바뀌어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극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50주년 기념 한국 공연

**일 시** | 2월 3일 금요일 오후 3:00, 7:30, 4일 토요일 오후 2:00, 6:30, 5일 일요일 오후 2:00 부산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15만원, R석 12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문의** | 클럽서비스(주) 1577-3363



성경을 파격적으로 해석하여 1971년 미국 브로드웨이 초연 당시부터 화제를 일으킨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50주년 기념 무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7일간의 여정을 담고 있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는 특히 뮤지컬계의 두 거장,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와 작사가 팀 라이스가 20대 시절 선보인 데뷔작으로, 록 음악과 클래식을 결합한 사운드로 초연 당시부터 파격적인 행보를 걸은 혁명적인 뮤지컬로 손꼽힌다.

## 뮤지컬 드라큘라

**일 시** | 2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11일-12일 토-일요일 오후 2:00, 6: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VIP석 15만원, OP석 14만원, R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14세 이상 관람가)  
**문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수세기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로맨티시즘의 뮤지컬 '드라큘라' 부산공연. 뮤지컬 '드라큘라'는 1995년 체코 프라하에서 초연된 이후 전 세계에서 약 5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유럽 뮤지컬의 대표작으로, 죽을 수 없는 형벌을 받은 비운의 남자 드라큘라의 매혹적인 스토리에 아름다운 넘버와 파워풀한 군무, 그리고 화려한 의상과 무대로 지난 1998년 국내에서 초연된 이후, 수 차례 시즌을 거듭하며 꾸준히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3년여 만에 다시 돌아온 뮤지컬 '드라큘라'는 보다 업그레이드된 무대와 배우들의 열연으로 한층 깊어진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 연극 해바라기

**일 시** | 2월 10일(금)-4월 9일(일) 수-금요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30, 6:00(월-화요일 공연없음) 초콜릿팩토리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12세 이상 관람, 예매 시 할인)  
**문의** | 극단 바라 1600-1716



병원 옥상에서 피어나는 웃음과 감동, 그리고 사랑 이야기 연극 '해바라기'. 어느 종합병원의 옥상, 말기 암 환자 만수와 보험 사기꾼 민복이 그들만의 아지트를 옥상에 만들고 무로한 시간을 보낸다. 간호사 물레 마시는 소주 한 잔으로 하루의 시름을 잊으려 하는데... 남은 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남자와 사체 빛을 깔으려 보험 사기극을 벌이는 남자, 억척같이 살아오다 하루아침에 살아갈 의미를 잃은 여자, 그리고 강한 카리스마를 풍기지만 누구보다도 환자를 사랑하는 간호사, 그들이 들려주는 웃음과 감동 스토리가 무대에 펼쳐진다.

## 가족뮤지컬 미녀와 야수

**일 시** | 2월 11일 토요일 오후 1:00, 3:00, 5: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24개월이상 관람)  
**문의** | 조이컬처 010-9611-2073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안데르센의 동화를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미녀와 야수'. 잘 생겼으나 이기적인 왕자는 요정의 저주에 걸려 야수로 변해버리고, 진실한 사랑을 받아야만 저주에서 풀려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 우연히 왕자의 성에 하룻밤 머물게 된 상인은 정원의 장미꽃을 허락 없이 꺾게 되고 그 벌로 자신의 막내딸인 벨을 야수와 결혼시키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야수로 변한 왕자와 아름답고 마음 따뜻한 벨의 진실한 사랑이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펼쳐진다.

###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

**일 시** | 2월 18일 토요일 오후 2:00, 6:00, 19일 일요일 오후 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OP석·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문의** | ㈜아이스타미디어컴퍼니 1644-4146



지난 15년간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전국 투어를 이어오며 대한민국 연극 최초로 해외 공연을 비롯해 누적 관객 85만 명을 넘어선 스테디셀러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 베스트셀러 작가 고희정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친정엄마와 2박3일'은 딸이 암 환자인 딸이 생의 마지막 2박 3일을 친정 엄마와 함께 보내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세상의 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사로 관객들의 마음 깊숙이 진한 감동을 선사해 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초연부터 871회 공연 중 776회가 넘는 공연을 원 캐스팅으로 소화해온 대한민국 국민 엄마 강부자와 아역배우 출신의 윤유선이 엄마와 딸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

### 뮤지컬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일 시** | 3월 4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5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KBS 부산홀**  
**입장료** | 1층석 7만원, 2층석 6만원  
**문의** | ㈜지에스시 1544-1555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어 시청률 1위를 기록한 동명의 어린이 판타지 소설을 뮤지컬로 제작한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일본작가 히로시마 레이코의 소설을 원작으로, 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 첫선을 보인 후 마법, 환상, 스릴러 등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판타지 이야기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행운을 가진 사람만이 만날 수 있는 전천당 피자 노를 잘 치고 싶은 도반은 뮤직스낵을 사고, 친구에게 괴롭힘을 받는 영수는 강해질 수 있는 늑대 만월빵을 먹는다. 몸이 아픈 엄마를 고치고 싶은 채리는 닥터 캡슐 키트를 사용하고... 신비하고 마법 같은 전천당의 과자들을 먹은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 콘서트

### 8밴8색 뽀(FUN)한밴드

**일 시** | 2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4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 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1층 5만5천원, 2층 4만5천원(토요일 공연은 1층 6만5천원, 2층 5만5천원)  
**문의** | 플래이즈 010-9484-3759



다양한 장르의 밴드 음악으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8밴8색 뽀(FUN)한밴드. 국민 애창곡 '응급실'을 부른 izi의 보컬 오진성의 izi 오진성밴드를 비롯해 34년차 1세대 밴드 블랙홀, 더크로스 출신의 보컬 김경현밴드,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목훈 등 저마다 색깔이 다른 8개의 밴드가 출연한다.

- 3일 출연팀/izi 오진성밴드, 문사출, 지클레프
- 4일 출연팀/블랙홀, (더크로스)김경현밴드, 빈시트, 목훈, 레드클라인

### Show Me the Money11 Concert

**일 시** | 2월 4일 토요일 오후 6:00 **KBS부산홀**  
**입장료** | 전석 12만1천원(만 13세이상 관람)  
**문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 2023 장윤정 라이브 콘서트

**일 시** | 2월 11일 토요일 오후 2:00, 6:00  
**부산백스코 오디오리움**  
**입장료** | VIP석 14만3천원, R석 13만2천원, S석 11만원  
**문의** | 비더블유이엔티 1566-9621

### 2022 윤하 콘서트 c/2022YH

**일 시** | 2월 18일 토요일 오후 6:00  
**부산백스코 오디오리움**  
**입장료** | VIP석 13만2천원, R석 12만1천원  
**문의** | ㈜전공이엔티 1522-2061

### 행사

### 김옥균의 클래식음악아카데미 클래식음악 영상해설감상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1:0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장료** | 1개월 5만원  
**문의** |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 이자 현재 클래식 해설가, 시인, 음악 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 뮤직아카데미'.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과 함께 유명 작곡가의 탄생지 기행, 국내외 최신 클래식 음악의 해외연주회 실황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2월에는 고향을 노래한 작곡가의 생애와 음악을 주제로 드보르작, 시벨리우스, 베르디, 하이든 등 작곡가의 탄생지를 찾아 그들의 음악 세계를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프로그램**  
 오페라의 고향 토스카나와 밀라노, 그리고 베르디

핀란드 음악의 풍경, 시벨리우스와 핀란드아 집시의 고향 보헤미아와 체코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궁정음악가, 현악사중주의 원조 하이든의 생애와 음악  
 신년 특집2-팜페라 소프라노 사라 브라이트만 공연실황

### 제183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새해, 봄맞이, 여행, 주제 낭송송회

**일 시** | 2월 18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알바트로스 낭송송문학회 010-6367-0149

- 출연/송다인 시인의 초대시인, 회원
- 초청 성악가/바리톤 박경훈

## 2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16일 목요일 오전 11:00 **시네바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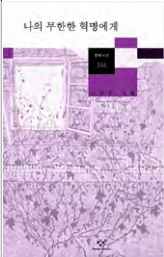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6일(월) 오후 7:00 영화 속 반도네온

- 강사/김종환(작곡가, 반도네오니스트, 친친탱고 대표)

13일(월) 오후 7:00 글로벌 시대의 내셔널리즘:

-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된 공동체> 읽기
- 강사/전성욱(동아대 기초교양대학 부교수)



16일(목) 오전 11:00 낭송과 낭독 그리고 詩수다 '나의 무한한 혁명에게(김선우 풀, 창비, 2012)

20일(월) 오후 7:00 문화예술, 세상을 바꾸다

- 강사/이철호(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27일(월) 오후 7:00 조용한 혁명

- 강사/성희업(부산연합기술지주 대표)

## 2월 오페라바움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오후 2:00, 7:3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722-9597



오페라 전문 음악 감상실인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2월 영상감상회. 매주 화요일에는 교향곡 등 관현악곡을, 금요일에는 고전, 낭만을 아우르는 인기오페라를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오페라/영화 '바그너'(3일), 바그너 '파르지팔'(10일),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17일), R.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24일)

교향곡/영화 '말러' 감상 및 토론(7일), 말러 교향곡 제9번(14일), 말러 교향곡 제10번(21일), 말러 '대지의 노래'(28일)

## 에필의 종합예술 액처콘서트(8)

## 멕시코 음악과 멕시코 미술의 어울림

일 시 | 2월 11일 토요일 오후 4:00

서면 영광도서 8층 문화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에필 최정옥 010-3853-6634



음악, 미술, 영화 3분야 예술인으로 등재된 에필 작가와 함께 떠나는 멕시코 예술기행.

마리아치의 낭만과 베사메우초의 나라 멕시코에서 음악, 미술, 영화, 詩, 역사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예술의 새 패러다임

이 펼쳐진다.

### 프로그램

멕시코 영화/프리다(2002, 줄리 테이머 감독)

멕시코 음악/라 밤바, 라 쿠카라차 등 12곡

멕시코 미술/상처 입은 사슴(1946, 프리다 칼로) 등 8점

멕시코의 詩/너의 눈동자(옥타비오 빠스·1990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 전시

### 2022 제3회 신수유물 소개전

## 개항장의 수출화가, 기산 김준근

일 시 | 2022년 10월 18일(화)-2023년 2월 12일(일)  
부산박물관 부산관 2층 미술실

문 의 | 부산박물관 610-7111

### 부산현대미술관 기획전

## 누구의 이야기

일 시 | 2022년 12월 9일(금)-2023년 3월 5일(일)  
부산현대미술관 전시실 2

문 의 | 부산현대미술관 220-7400~1

### KT&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 팝업 기획전

## 에그박사팀의 연구실

일 시 | 2022년 12월 23일(금)-2023년 2월 19일(일)  
KT&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 5층

입장료 | 관람료 5천원

문 의 | KT&G 상상마당 부산 070-8893-0892

● 관람시간/오전 11:00~오후 8:00

### 문화매개공간 '쌈 갤러리' 재개관 기념

## 초대전 '탈·꿈·먹·쌈展'

일 시 | 1월 14일(토)-2월 28일(화) **쌈 갤러리**

문 의 | 문화매개공간 쌈 010-2355-8896



지난 2009년 개관한 후 지역 문화예술 사랑방으로 많은 사랑을 받다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문화매개공간 '쌈'이 올해 들어 새롭게 재개관하며 마련하는 재개관 기념 초대전.

이번 '탈·꿈·먹·쌈展'에서는 한국의 전통적 미의식을 현재의 시간으로 끌어올려 현대인의 고단한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동시대인의 의지를 드러내는 작가 이석금, 곽영화, 박경효의 작품을 소개한다.

### 이우환과 그 친구들 IV

## 무라카미 다카시: 무라카미쫄비

일 시 | 1월 26일(목)-3월 1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0507-1404-2602

일본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무라카미 다카시의 작품으로 꾸며지는 부산시립미술관 '이우환과 그 친구들' 네 번째 시리즈.

일본 대중문화를 모티브로 국제적인 작가로 성장한 무라카미는 이번 전시를 통해 '쫄비 미학'을 소환한다.

특히 작가의 지난 40년의 활동을 돌아보는 대형 회고전으로, 대중에게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초기작을 포함해 회화, 대형 조각, 설치, 영상 작품 등 16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 3시의 프레임

박영란 지음 / 소소담담 / 1만4000원

수필가 박영란의 다섯 번째 수필집. '전북 중앙일보' 신춘문예와 '에세이 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수필집 <바람이 데려다 주리>, <랄랄라 수필>을 냈다. 한국수필문학진흥회 이사, 부산문인협회 회원, 에세이부산 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등단 후 꾸준히 글을 쓰면서 백두대간 종주, 낙동정맥, 올레길, 갈매길을 걸었다. 요즘은 사진도 찍는다. 수필 쓰기는 '자신에 대한 귀의'이다. "수필과 나는 느슨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관계였다. 방심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온몸을 던져 사랑한 건 아니었다"는 저자의 말이 수필의 성격을 말해준다. 박영란 수필은 끊임없이 형식적인 실험을 시도한다. 그의 작품집에 수록된 작품은 구성과 형식에서 다양한 면모를 드러낸다. 박영란은 개성적인 스타일을 가진 수필가다. 그는 다양한 시도 가운데에서 자기만의 스타일, 즉 문체를 보여준다. 그의 문체가 지니는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역동적이다. 그의 수필은 특별한 메시지를 담거나 그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대상과 세계에 대한 깊은 해석을 담으면서도 가볍고 감각적이기에 읽기에 편하고 상쾌함을 준다. 중견 수필가로서 역량을 보여주는 수필집이다.

### 우리 품에 돌아온 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엮음 / 놀와 / 1만8000원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수는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무려 21만여 점에 달한다. 우리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이 세계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 우리 선조들의 손으로 만든 문화재가 나라 밖에서 수난을 겪고 있다니 안타깝다. 남의 땅을 침탈하고 남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아 갔던 나라들이 큰소리 치고, 빼앗긴 나라가 돌려달라고 사정하는 현실은 답답하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2012년 7월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이다. 세계 속 한국 문화재 소장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 조사와 외국 고미술 시장의 한국 문화재 유통 현황을 파악하는 유통조사, 나라 밖 한국 문화재들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협력지원 사업 등을 펼친다. 이 책은 문화재 반환 사례 19건을 모아 소개한다. 태평양전쟁 중 도쿄에서 구해낸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한국전쟁 때 도난당했지만 미국 수사국에 포착돼 돌아온 '대한제국 국새', 흑백사진 2장이 불법 약탈의 결정적인 증거가 돼 원래 자리로 돌아온 '신항사 영산회상도' 등 많은 이의 노력과 곡절 끝에 고국으로 돌아온 문화재 이야기가 펼쳐진다. 생생한 사진, 친절한 해설이 문화재에 얽힌 역사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세상을 그리는 아이

레오 박소훈 글·그림 / 청어람미디어 / 2만3000원

그림으로 전 세계 3만 명 팔로워와 소통하는 13세 소년 화가 '레오 박소훈'의 작품집. 레오는 3년 전부터 영국을 비롯한 유럽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보았던 건축물과 도시 풍광을 주제로 한 직접 그린 그림을 인스타그램에 영문 설명과 함께 올리고 있다. 팔로워들이 주목하는 건 '열세 살 소년'이라는 점이다. 어린 소년의 그림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빼어난 실력의 작품들은 전 세계 화가, 작가, 출판사, 건축 관계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영국의 로열 익스체인지, 리버티 백화점, 포트넘&메이슨, 로체스터 대성당, 독일의 함부르크 해양박물관, 미국 플로리다 플래글러 박물관 등 유명 관광지에도 레오의 그림이 걸릴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해외에서 작품으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 책에는 영국 유명 건축물과 도시 풍광, 영국 작가들의 책을 보고 그린 감상화,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상상 속 건물 등을 담은 작품 90여 편이 실려 있다. 동네 미술학원을 취미 삼아 다녔던 게 전부지만,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국내는 물론 레오가 직접 보고 싶어 하는 건축물들이 있는 유럽과 영미권 국가들을 부모님과 함께 다니면서 시작한 스케치 여행이 그림 실력의 단단한 바탕이었다.

### 제8기 SNS서포터즈 SNS주부홍보단 출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재)부산문화회관 <제8기 SNS서포터즈>가 지난 1월 17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운영되는 <SNS 주부홍보단>도 1월 12일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제8기 SNS서포터즈>는 모두 26명이 선발됐으며 오는 6월까지 6개월간, (재)부산문화회관의 주요 행사와 소식을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공유,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서포터즈는 40대 이상 여성 주부로 구성된 <SNS 주부홍보단>과 차별화하여 20, 30대를 중심으로 꾸려졌으며, 홍보 타깃층 또한 20, 30대를 겨냥하여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등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발대식에 앞서 지난 1월 9일에는 <제7기 SNS서포터즈>의 활동을 마감하는 수료식이 열렸다. 특히 이번 <제7기 SNS서포터즈>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MZ세대의 관객 개발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재학생들이 서포터즈로 참여한 바 있다.

한 가정의 교육, 문화와 소비의 주체가 되는 주부들의 SNS 채널 홍보를 통한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운영되는 <SNS 주부홍보단>은 (재)부산문화회관 및 개인 SNS 채널을 활용,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공연, 전시 소식을 빠르게 전하며 우리기관과 시민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SNS 주부홍보단>은 현재 23명이 활동중이며, 올 한해 일 년 동안 활동을 이어나간다.

###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에 8개 향토기업 가입

기업의 품격을 높이고 법인가족을 위한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에 지역 기업들의 가입이 늘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은 지난해 고려정보통신(주)과 동광에스아이(주), (주)더블유웨딩, 더리본(주)더파피, 부산도시공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아시아드CC 등 8개 업체가 가입했다. 특히 이들 업체 중 고려정보통신(주)와 (주)더블유웨딩, 더리본(주)더파피 등 3개 업체는 2021년에 이어 다시 한번 가입함으로써 법인회원에 대한 만족도를 보였다.

지난 2020년 신설된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은 연회비에 따라 루비 레드(Ruby Red), 에메랄드 그린(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Sapphire Blue) 등 3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법인회원에 가입하면 (재)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의 공연 및 전시 입장료, 아카데미 수강료, 주차료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월간 <예술의 초대>, 회관 내 DID(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홈페이지 및 공식 SNS 등 (재)부산문화회관만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통해 기업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고객개발팀  
051-607-6041, www.bscc.or.kr

## (재)부산문화회관, 국립발레단 공연수익금으로 기부금 전달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이정필)과 국립발레단(단장 겸 예술감독 강수진)이 공연 수익금 전액을 부산어깨동무나눔봉사단에 기부했다. 이번 공연 수익금은 양 기관이 지난해 공동으로 추진한 공익사업의 결실로, 부산지역 소외계층 어린이들이 예술로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악기 구매에 쓰여질 계획이다.

(재)부산문화회관과 국립발레단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부산지역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국 최고의 발레단인 국립발레단 단원들이 진행하는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했으며, 이후 모든 과정을 마친 발레 꿈나무들과 함께 11월 23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발레 갈라 공연-Fly Higher with KNB(Korean National Ballet)’를 무대에 올려 많은 호평을 받았다.

(재)부산문화회관 이정필 대표이사는 “부산문화회관과 국립발레단이라는 두 문화예술 전문기관이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음으로써 공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며, 공연 수입금 또한 전액 기부되어 또 다른 아이들의 꿈을 위해 쓰여질 수 있어 그 의미가 크고 남다르다” 며 “앞으로도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하여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문화나눔 공익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에 백승현 부지휘자 선임



©김신중

공석이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에 부산시립교향악단 백승현 부지휘자가 선임됐다.

올해 1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임기를 시작한 백승현 지휘자는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수학한 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지휘 전공)를 졸업하고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악대학 대학원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와 합창 지휘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독일 문화부 산하 독일 음악협회 ‘지휘자포럼’의 회원을 역임한 그는 지난 2021년 제7회 에른스트 폰 슈흐 상을 공동수상했으며, 바덴바덴 필하모니, 로이틀링엔 필하모니, 앙상블 무직파브릭, 데트몰트시립극장 오케스트라, 바트라이헨할 필하모니, 웨스트 보헤미안 심포니 등을 지휘하며 독일에서의 활동을 이어왔다. 국내에서는 포항시립교향악단, 필하모니 코리아, 서울모던앙상블, 서울비르투오지, 앙상블 위로 등을 객원지휘했으며, 특히 지난해는 이데일리 문화대상 대상작인 와이즈발레단의 ‘VITA’ 국내 순회공연을 지휘한 바 있다. 귀국 이후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백승현은 덕성여자대학교,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덕원예술고등학교 등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재]부산문화회관 2023년도 상반기 다듬채 대관 접수 안내

(재)부산문화회관 연습동 다듬채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대관을 접수합니다.

**대상** 다듬채 1층 연극/무용연습실, 2층 음악연습실(부산문화회관 연습실)

**대관기간** 2023년 2월 ~ 6월  
※ 접수가 가능 일정은 매주 금요일(17:00) 기준으로 홈페이지 업데이트  
(www.bscc.or.kr 부산문화회관-대관서비스-대관공지사항)

**접수기간** 상시 접수

**대관구분 및  
사용료**

- ▶ 오전 : 09:00~12:00(44,000원)
- ▶ 오후 : 13:00~17:00(55,000원)
- ▶ 야간 : 18:00~22:00(55,000원)
- ▶ 피아노 사용 : 1회 11,000원

**결과안내**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 겹칠 경우 결과 안내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rent@bscc.or.kr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후 이메일접수)

## 대관신청 및 승인 절차

신청 및 접수



심의



결과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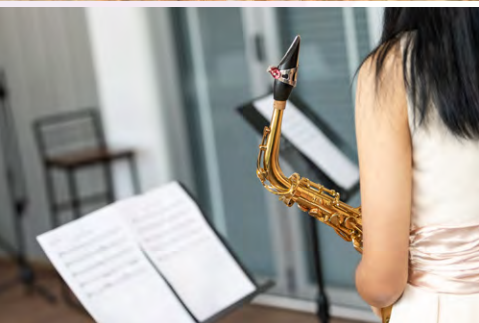
**대관신청서** 시설대관신청서, 세부계획서 작성 후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신청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혹은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파일 첨부  
※ 세부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 심의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납부** 사용 승인 후 3~7일 이내 납부  
※ 기한 내 대관료 미입금 시 대관 승인이 자동 취소되며,  
향후 대관신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취소 및 환불**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시 전액 환불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팀 ☎ 051-607-6051



# BSCC

P R O G R A M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3 시즌 프로그램(1월~6월)

###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로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시, 1,000원 추가 할인

**전화예매** |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 ARS 1번 **외국어 문의** | ARS 2번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날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날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공연 1일 전 취소 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 마감 17시 이후 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ARS 1번)

# 2023. 1-6월

## January - June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 부산문화회관

새해의 시작을 여는 실내악의 향연  
2023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부산으로부터의 초대>**

**문화 | 중극장 챔버홀**  
2023. 1. 3.(화)-1. 17.(화)  
예술감독 | 김동욱



### All that Chamber music :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 리더들의 실내악 향연

**문화 | 중극장** 2023. 1. 3.(화) 7:30pm  
R 30,000원 S 20,000원  
• 바이올린 | 데니스 김, 미셸 김, 김동욱, 임홍균  
• 비올라 | 최영식, 배은진  
• 첼로 | 요나 김, 벤자민 휴즈  
• 피아노 | 션 케너드 • 클라리넷 | 백동훈



### Trio Barclay :

The Essentials of Piano Trio & Quintet :  
바클레이 트리오가 들려주는 피아노 트리오와  
퀸텟의 진수

**문화 | 챔버홀** 2023. 1. 4.(수) 7:30pm  
전석 20,000원  
• 바이올린 | 데니스 김, 미셸 김 • 비올라 | 최영식  
• 첼로 | 요나 김 • 피아노 | 션 케너드



### 학교 실내악 축제

**문화 | 챔버홀** 2023. 1. 7.(토) 5:00pm  
전석 10,000원  
※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부산예술중학교



### 3인3색(三人三色) in Busan : 실내악 열전

**문화 | 챔버홀** 2023. 1. 10.(화) 7:30pm  
전석 20,000원  
※ 주빌레 클라리넷 앙상블, KNN 앙상블,  
앙상블 아토



### Rosenstein String Quartet :

로젠슈타인 현악4중주  
**문화 | 챔버홀** 2023. 1. 12.(목) 7:30pm  
전석 30,000원  
• 바이올린 | 알렉산더 크낙, 이수은  
• 비올라 | 디르크 헤게만, 황여진  
• 첼로 | 마누엘 본 데어 나머, 홍승아



### The Variety of Chamber music :

기(起)-승(承)-전(轉)-실내악(室內樂)  
**문화 | 챔버홀** 2023. 1. 14.(토) 5:00pm  
전석 20,000원  
• 바이올린 | 김현오 • 첼로 | 김지영  
• 피아노 | 조민현 • 소프라노 | 양송미  
• 피아노 | 김성주 • 비올라 | 김가영 • 동백유랑단



### 폐막 연주회 :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with 심희정

**문화 | 챔버홀** 2023. 1. 17.(화) 7:30pm  
전석 20,000원  
•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 피아노 | 심희정



### 2023 (재)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3. 1. 29.(일) 4:00pm  
R 70,000원 S 50,000원 A석 30,000원  
• 지휘 | 마놀로 까닌 • 출연 | 빈 소년 합창단



### 뮤지컬의 본 고장, 당신이 꿈꾸는 바로 그 곳!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문화 | 대극장** 2023. 2. 3.(금)-2. 5.(일)  
금요일 7:30pm, 토요일 2:00pm, 7:00pm,  
일요일 2:00pm  
R 140,000원 OP 130,000원 S 100,000원 A 70,000원  
• 출연 | 송일국, 이종혁, 정영주, 배해선, 신영숙, 전수경, 홍지민, 오소연,  
유낙원, 김동호, 이주순 외  
•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브루스 리우 피아노 리사이틀

**문화 | 중극장** 2023. 3. 10.(금) 7:30pm  
R 60,000원 S 40,000원



### 색다른 모미의 공주 이야기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문화 | 사랑채** 2023. 3. 16.(목)-4. 27.(목)  
평일 11:00am / 주말 11:00am, 2:00pm  
전석 20,000원  
• 제작 | 극단 동그라미그리기  
• 출연 | 황자미, 우지현, 박규한, 김현주, 김선정 외 다수  
• 관람연령 | 24개월 이상



###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양인모&김다솔 듀오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3. 3. 29.(수) 7:30pm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 유럽 최고 수준의 스페니시 챔버 앙상블 콘체르토 말라가

**문화 | 대극장** 2023. 4. 6.(목)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 티켓오픈 추후공지





임지영&문태국 슈퍼 듀오와 함께하는  
브람스 음악세계의 진수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내한공연**

- 문화 | 대극장 2023. 4. 22.(토) 5:00pm  
V 150,000원 R 120,000원 S 70,000원 A 50,000원
- 지휘 | 마르코 레토나
- 연주 |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협연 | 임지영(바이올린), 문태국(첼로)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빈 Guitar 국제 콩쿠르 우승자 리사이틀**

- 문화 | 중극장 2023. 4. 27.(목) 7:30pm  
R 50,000원 S 30,000원
- 출연 | 기타리스트 캐시 마르탱, 로안나 코조글로우, 장승호
- 콘서트 가이드 | 국지연



별과 꿈, 동심의 만남! 우리가 꿈꿔온 설렘이 시작된다  
어린이 베스트 캐릭터 뮤지컬

**<피터팬과 후크선장>**

- 문화 | 사랑채 2023. 6. 9.(금)-7. 23.(일)  
평일 11:00am 주말 11:00am, 2:00pm  
(\*월, 화 공연 없음)  
전석 20,000원
- 제작 | 극단 오오씨어터
- 출연 | 박규한, 김성열, 이충환, 정지수 외 다수
- 관람연령 | 36개월 이상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자극과  
클래식 음악이 함께하는 공연

**음악동화 그림자극 <피터와 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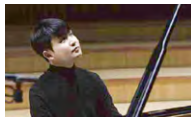
- 문화 | 사랑채 2023. 8. 18.(금)-9. 24.(일)  
평일 11:00am 주말 11:00am, 2:00pm  
(\*월, 화 공연 없음)  
전석 20,000원
- 제작 | 극단 영
- 출연 | 최진희, 원우연, 이승, 이한강, 이명진 외
- 관람연령 | 36개월 이상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 문화 | 대극장 2023. 10. 6.(금) 7:30pm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 시민 | 대극장 2023. 1. 10.(화)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 최수열(예술감독)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 사회 | 김석훈 • 첼로 | 송영훈 • 바이올린 | 대니 구 • 피아노 | 박종해



인생 2막, 새로운 청춘, 다시 가슴이 뗌다!!  
**쓰리보이즈 리턴즈**

- 시민 | 소극장 2023.2.10.(금) 7:30pm  
2.11.(토) 3:00pm  
전석 20,000원
- 제작 | 공연집단The
- 연출 | 김기영
- 출연 | 강열우, 정승천, 황해순
-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낭만 발레의 걸작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 시민 | 대극장 2023. 4. 7.(금) 7:30pm,  
4. 8.(토) 3:00pm  
V 90,000원 R 7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 대본 | 배르노이 드 생 조르주, 테오펠 고티에, 장 코라이
- 안무가 | 장 코라이, 질 페로 • 음악 | 아돌프 아당
- 연출 | 올레그 비노그라도프, 유병헌
-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우리 아이 첫 클래식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뚜똘를 찾아라**

- 시민 | 대극장 2023. 5. 20.(토) 3:0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 출연 | 핑크퐁, 아기상어, 대니 구, 핑컨코러스,  
바샤르 오케스트라
- 관람연령 | 36개월 이상



한국인이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피아노의 음유시인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 시민 | 대극장 2023. 5. 26.(금) 7:30pm  
V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청년 버스커들의 대축제!  
**부산버스킹페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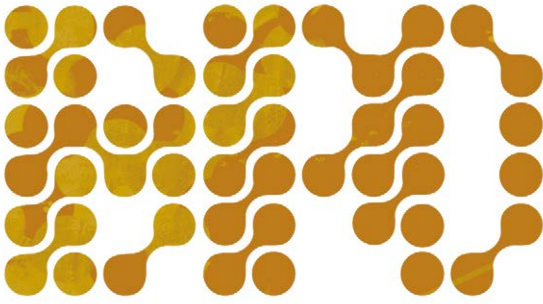
- 시민 | 소극장 2022. 6. 3.(토) 3:00pm  
전석 20,000원
- 연주 | 버스킹 경연에서 선발 된 10개의 밴드  
초청가수(미정)



부산에서 만나보는 세계 어린이 청소년극!  
**세계 어린이·청소년 예술축제  
아시테지 인 부산**

- 시민 | 소극장 2023. 7월 중





# 2023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예술감독 최수열  
올해의 예술가 손민수

# BPO SYMPHONIC SEASON 2023

Soo-Yeou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Minsoo Sohn, Artist-in-Residence 2023



## 596 6 Last Works I Beethoven, Gulda and Dvořák

1월 19일 THU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최수열  
첼로 심준호

### Program

베토벤 /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굴다 / 첼로와 관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드보르자크 /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 597 Wagner and Bruckner

2월 21일 TUE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홍석원

### Program

바그너 / “트리스탄과 이졸데” 中 전주곡과 사랑의 죽음  
브루크너 / 교향곡 제6번 (노바크 판본)



## 598 6 Last Works II An All-Brahms Program

3월 23일 THU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최수열  
피아노 손민수 (2023 올해의 예술가)



### Program

브람스 /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브람스 / 교향곡 제4번



## 599 Mendelssohn and Bartók

4월 21일 FRI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금노상  
바이올린 나승준 (2023 정기연주회 오디션 합격자)

### Program

멘델스존 / “핑갈의 동굴” 서곡  
멘델스존 / 바이올린 협주곡  
버르토크 /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 600 6 Last Works III Mahler's 9th Symphony

6월 16일 FRI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최수열

### Program

말러 / 교향곡 제9번

## 601 Shostakovich and Prokofiev

7월 21일 FRI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서진  
바이올린 김재원

### Program

쇼스타코비치 /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프로코피예프 / 교향곡 제7번



## 602 6 Last Works IV Four French Composers

(2023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9월 7일 THU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최수열  
바이올린 올리비에 샤를리에

### Program

메시앙 / 미소  
쇼송 / 시  
라벨 / 치간  
비제 / “카르멘” 모음곡 中 발췌

## 603 An All-Tchaikovsky Program

9월 22일 FRI 19:30 시민회관 대극장  
지휘 김덕기  
피아노 세르게이 타라스프

### Program

차이콥스키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차이콥스키 / 발레 모음곡 中 발췌



## 604 6 Last Works V Haydn and Brahms

10월 27일 FRI 19:30 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최수열  
피아노 손민수 (2023 올해의 예술가)



### Program

하이든 / 교향곡 제104번  
브람스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 605 Prokofiev and Rachmaninov

11월 17일 FRI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사오치아 루  
바이올린 백주영

### Program

프로코피예프 /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라흐마니노프 / 교향곡 제2번

## 606 6 Last Works VI Pärt and Strauss

12월 14일 THU 19:30 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최수열

### Program

파트 / 벤자민 브리튼을 기리는 칸투스  
슈트라우스 / 영웅의 생애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3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 특별한 혜택

### 2023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 <부산으로부터의 초대>

2023년 1월 3일(화)-1월 17일(화)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종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챔버홀(3일 R석 20매, 이외 회차별 20매)

###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1월 29일(일) 오후 4:00 **종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S석 40매)

### 쓰리보이즈 리턴즈

2월 10일(금) 오후 7:30, 2월 11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S석 2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문화예술팀(051-607-6200)

#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브루스 리우 피아노 리사이틀  
3월 1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S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양인모&김다슬 듀오 바이올린 리사이틀  
3월 29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S석 40매)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4월 7일(금) 오후 7:30, 4월 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S석 40매)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내한공연  
4월 22일(토) 오후 5:00 **종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빈 기타 국제 콩쿠르 우승자 리사이틀  
4월 27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S석 40매)

핑크퐁 클래식 나라  
뚜띠를 찾아라  
5월 20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S석 40매)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5월 26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S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10월 6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S석 40매)

#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회원가입

가입신청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측 협의에 한함)



VIP

-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불가능)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회원카드 제시) | 제휴업체 할인(사정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051-607-6041, www.bscc.or.kr)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넷 회장

##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강서룡 호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장문호

장세비

정문흠

정연택

정용환

조기종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디씨엠(주) 대표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 일반회원

강득용

김말순

김영수

김종부

김 철

김희규

도재철

문민우

박성복

박성환

박혜빈

박홍근

성원기

양은진

이경철

이상수

이수민

이에리카정애

이현숙

임은자

정민섭

정의화

조성락

조중래

하정태

한원우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다올테크 대표이사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대동병원 이사장

세종기획 이사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삼강종합건설(주)

세무법인 인성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굿엔프랜드주식회사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전)국회의장

속편한내과 원장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좌석 네이밍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 원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 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051-607-6042)



# 2023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신규단원 모집 공고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서는 부산 지역 청소년 문화예술 발전에 주역이 될  
참신하고 유능한 신규단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단원 모집 개요

- **응시 자격** : 노래에 소질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 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임할 수 있는 부산시 거주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 2023년 3월 학기 기준)
- **모집 인원** : 00명
- **모집 조건**

### 공연출연 및 연습참여

- ▷ 주 2~3회 연습 참여
  - 초등학교 ~ 중학교 1학년 : 화, 목, 금(17:00~19:30)
  - 중학교 2학년 이상 : 화, 목(17:30~20:00)
  - ※ 내부사정에 따라 연습일정은 변동 가능
- ▷ 공연 편성 시 공연 출연

### 혜택

- ▷ 연습 출석 시, 간식 및 교통비 제공
- ▷ 연주에 관련된 연주복 및 단체복 제공
- ▷ 우수단원 표창
- ▷ 공연 활동 시, 자원봉사 시간 부여
- ▷ 해외공연 참가 기회 부여 (우수단원 우선 참여)
- ▷ 외부공연 참여 시 소정의 공연수당 지급

※ 공연출연 및 연습참여 관련 세부사항은 내부 규정(조례,활동규칙 등)에 따라  
운영함.

## 일정 및 방법

### • 전형일정

접수기간	2023. 01. 16.(월) ~ 02. 17.(금)(18:00 마감)
시험구분	실기 및 면접전형
시험일시	2023. 02. 23.(목) 16:30 ~ ※ 16시까지 대기실 입실완료
전형장소	부산문화회관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합격자발표	2023. 02. 28.(화) 17:00(예정)

※ 서류접수 마감시간 : 2023. 02. 17.(금) 18:00까지이며, 이후 시간은 접수  
되지 않음

※ 응시순서 추첨 시작 후 입실 시 응시 불가

### • 전형방법 : 실기전형 및 면접전형

▷ 응시순서 추첨 : 전형 시작 30분 전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실기전형 순서 추첨

▷ 추첨 순서에 따라 개별 실기전형 실시 후 보호자와 함께 면접전형 실시  
※ 실기 및 면접 전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커뮤니  
티-새소식-공지) 참조

## 원서 접수 및 유의 사항

### • 응시원서 접수방법

#### ▷ 접수방법

- ①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커뮤니티-새소  
식-공지)에서 해당 공고문 첨부파일「응시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 ② 2023. 02. 17.(금) 18시까지 e-mail 접수 :  
jhyun4001@bscc.or.kr  
- 첨부파일 및 메일 제목 : “2023 응시원서\_홍길동(응시자 이름)”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접수시간까지 확인된 메일만 접수인정

#### ▷ 준비서류 : 응시원서 1부

- 전자우편으로 응시원서 접수 후, 접수번호 개별 회신
- 전형당일 : 재학생증명서(본인확인용)

### • 유의사항

- ▷ 2023. 03. 07.(화) 17시 연습부터 참석 가능하여야 함
- ▷ 신규단원 오리엔테이션 참석 : 2023.03.04.(토) 11시  
※ 최종 합격단원 및 단원 보호자 1명 동반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행정지원팀(051-607-3102)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어린이뮤지컬아카데미 공연

# 뮤지컬 피터팬



**2023. 2. 25(토)~26(일) 토 16:00, 19:00 일 13:00, 1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원작 J. M. 베리 각색 강보람 작곡 전현미 작사/연출 김지용 안무/움직임연출 홍충민 조연출 박신영 무대디자인 황지선 조명디자인 조세현 의상디자인 박선미  
분장디자인 이지원 영상디자인 이현우 음향 브이오디오 무대감독 정순지 기획/홍보 박지현 그림 이예린 (부산시립극단 어린이뮤지컬아카데미 제1기 포스터 공모 금상 수상작)  
배우(시립극단) 김은옥 김은희 서보기 염지선 오희경 이태성 이혁우 이현주 채민수 황창기  
배우(어린이) 강다현 광태림 권보영 김규나 김나연 김서연 김주영 김준혁 노지훈 박서휘 손민서 양하운 이지원 임채린 장다운 정서운 정지우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제작 부산시립극단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전화 051)607-6000 ARS 1번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관람가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 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배시시TV



(재)부산문화회관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씬머니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정합니다.

COUPON



5% Discount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PO 2030  
BUSAN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가족 동화뮤지컬

# 백설공주와 마법거울

2023. 3. 16(목) - 4. 27(목)

평일 11시 / 주말 11시, 14시 (월, 화 휴관)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3. 2. 28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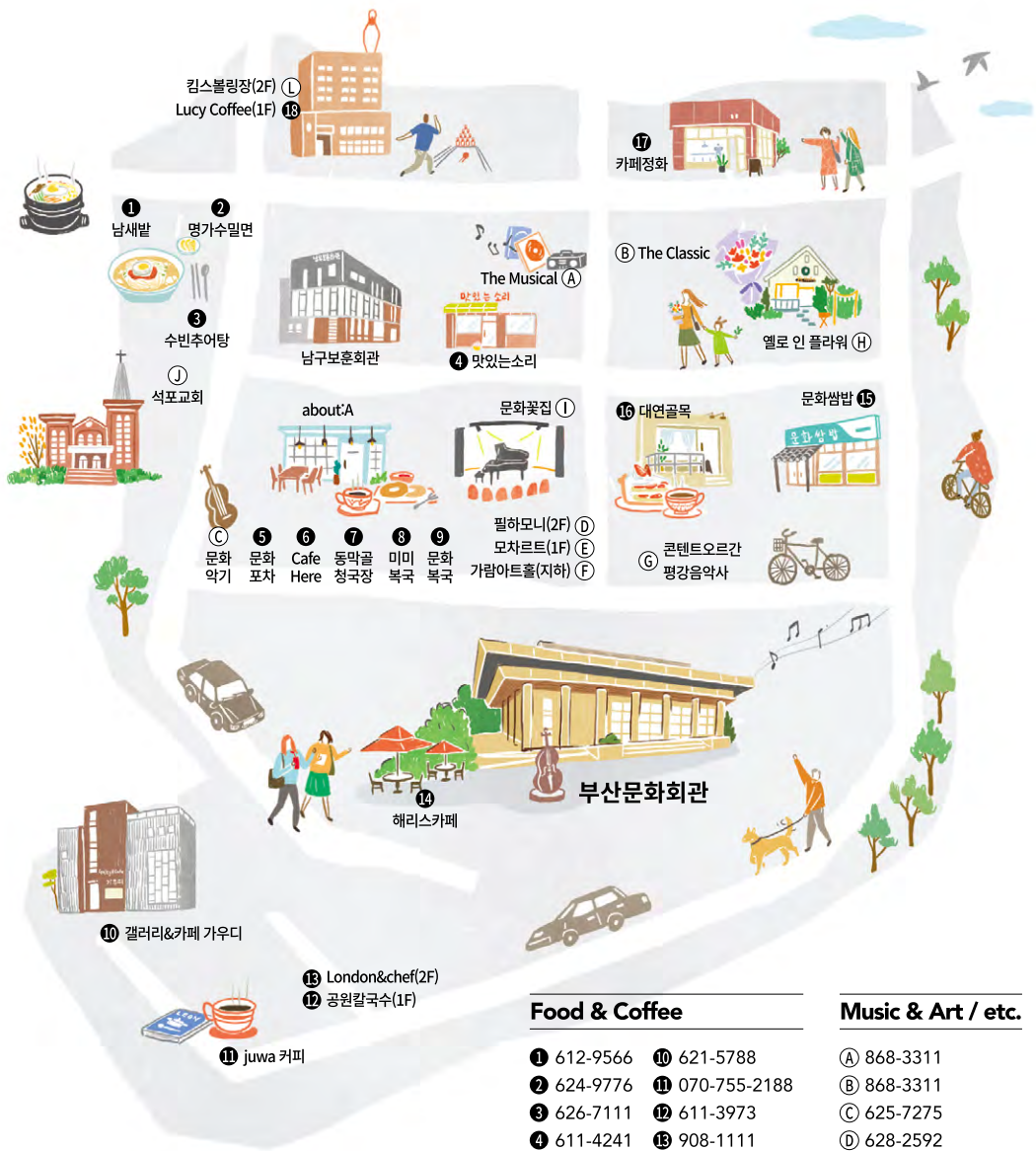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Surrounding map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Food & Coffee**

- ① 612-9566    ⑩ 621-5788
- ② 624-9776    ⑪ 070-755-2188
- ③ 626-7111    ⑫ 611-3973
- ④ 611-4241    ⑬ 908-1111
- ⑤ 626-4448    ⑭ 625-9402
- ⑥ 622-7412    ⑮ 626-2292
- ⑦ 611-3589    ⑯ 010-3996-6498
- ⑧ 628-8009    ⑰ 623-0772
- ⑨ 621-7040    ⑱ 628-3832

**Music & Art / etc.**

- Ⓐ 868-3311
- Ⓑ 868-3311
- Ⓒ 625-7275
- Ⓓ 628-2592
- Ⓔ 622-1456
- Ⓕ 621-6669
- Ⓖ 626-7900
- Ⓘ 080-337-3370
- Ⓧ 622-9722
- Ⓨ 625-8704

COUPON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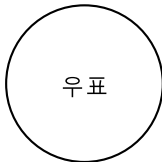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50  
051)513-45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받는 사람

이름

주소



2023

2

FEBRUARY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



모바일 엽서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인생 2막, 새로운 청춘!  
다시 가슴이 뛴다!!

# 쓰리보이즈 리턴즈

관람연령 | 만7세 이상 관람가



강열우



황해순



정승천

2023. 2.10. 금 - 2.11. 토 19: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주최·주관 : (재)부산문화회관

제작 : 공연집단The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 1번)

토 15:00  
티켓 20,000원





# Bremer Philharmoniker

브레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내한공연

지휘 마르코 레토냐 (Marko Letonja) 협연 바이올린 이지영 / 첼로 문태국

브람스  
Johannes Brahms

대학축전서곡 Akademische Fest-Ouverture Op.80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 Double Concerto a minor Op.102  
교향곡 4번 Symphony No.4 e minor Op.98

2023. 4. 22 SAT 5:0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유니버설발레단  
UNIVERSAL BALLET

BUSAN CITIZEN'S HALL  
부산시민회관

# 지젤

Giselle

관람연령 | 만 7세이상 관람가

2023. 4.7 금 19:30, 4.8 토 15:00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예매 | 부산시민회관 051.607.6000(ARS 1번) 인터파크 1544.1555

주최 |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회관

출연 | 유니버설발레단  
UNIVERSAL BALLET

티켓 | V석 9만원, R석 7만원, S석4만원, A석 2만원

Dancer | Mara Barros  
© Universal Ballet Photo by Kyoungh Kim